

취업자 100중 4명 10대그룹 다닌다

10년새 34만명 늘어 91만명 신규채용에 따른 증가보다 M&A로 계열사 편입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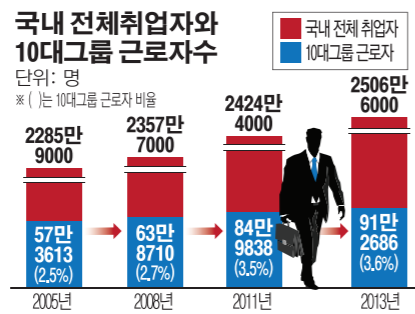
10대 그룹 소속 근로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3%에서 4%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그룹 소속 근로자 수 증가 속도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속도보다 2배 가량 빨랐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근로자 수 증가는 신규 채용 등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때문이 아니라 인수합병 등 분야별 확장 등에 따른 계열사 수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이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근로자 수 증가 속도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과 비교해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내 취업자 수를 보면 2005년 2285만명, 2006년 2315만명, 2007년 2343만명, 2008년 2357만명, 2009년 2350만명, 2010년 2382만명, 2011년 2424만명, 2012년 2468만명이다. 지난해 최초로 2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말 기준 2587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씩 늘어났다.

반면 비상장사를 포함한 10대 그룹 계열사의 근로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 91만2886명으로 역대 최초로 10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말 57만 3613명과 비교해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대 그룹 근로자 수 증가는 소속 장사(금융회사 제외) 81곳에서 59만770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근로자 수는 2005년 45만2338명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56만2375명, 2012년 57만 781명, 2013년 59만2955명 등 지난 10년간 15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 전체 취업자가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말 2.5%에서 지난해말 3.6%로 1%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근로자 수의 증가는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대형 M&A로 인한 계열사 편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M&A가 이뤄진 지난 2008-2012년 근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유성 기자 hyson0214@

생보사 연말 구조조정 한파 몰아친다

한화생명, 상반기 희망퇴직 단행 6개월만에 또 감원... 삼성·교보생명도 슬렁

우리경제에 '산타' 오실까?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25일 서울 태평로 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트리 옆을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후 '2014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통해 대형 성탄 트리 점등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도 시작돼 시민들에게 겨울의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저금리와 업황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생보보험업계에 연말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삼성생명을 필두로 빅3 생보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에서 연말에도 추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생보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명은 지난 7일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침을 담은 공문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사측이 전달한 공문에는 퇴직금과 함께 30개월치 위보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올해 상반기 60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단계라고 설명했지만 노조에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합의의 틀이 내기 위한 단계"라며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외에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인력 구조조정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장영희씨 선택 직원들의 복직 여부에 따라 추가적 희망퇴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 실시된 희망퇴직에서 408명을 감축했지만 당시 장영희씨를 선택한 인력이 80여명이다. 따라서 이 인력과 추가적 인원을 합해 100명가량의 감원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삼성생명 역시 추가 구조조정이 나뉠고 있다. 앞서 실시한 구조조정에서 과장 등 실무급 인력들의 이탈이 많아 상무하락의 구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구조조정설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내년 업계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때때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보사의 수익성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전 삼성생명 사장〉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 이수창씨 단독추천

차기 생보보험협회장 후보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사진)이 단독으로 추천됐다. 이 전 사장과 2과전을 벌였던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수창 전 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이날 회주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김장수 삼성생명 사장,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김성환 교보생명 전무, 이근찬 한국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협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생보협회는 다음달 4일 총회를 개최해 이수창 회장 후보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샤넬 옆 빵집... 백화점 '1층의 반란'

롯데백화점에 '성심당' 오픈 식품 고급화 전략 과격적 실행

'로열층'으로 불리는 백화점 1층에 식품 매장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통상 백화점 1층은 해외 명품 브랜드나 단위 면적당 매출 효율이 높은 뷰티 브랜드가 차지하는 자리다. 롯데백화점은 26일 대전점 1층에 '성심당 케익부띠끄'를 오픈한다. 국내 백화점 역사상 1층에 부띠끄 형태의 디저트 단독 매장을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점의 '케익부띠끄'는 '성심당'에서 새롭게 론칭한 디저트 전문 브랜드다. 200㎡(60여평) 규모 매장에 50여 종류의 베이커리와 초콜릿, 마카롱, 커피까지 총 160여개 제품군을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이례적으로 식품 단독 매장을 1층에 입점시킨 것은 매출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각 지역의 맛집과 베이커리를 꾸준히 입점시키고 디저트 맛집을 발굴해 왔다. 가장 대표적 브랜드인 '성심당'은 2011년 대전점에 입점한 후, 기존 브랜드 대비 10배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본점, 부산본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일주일 동안 2억원 이상의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디저트 전문화와 차별화를 위해 일본 도요제과 출신의 디저트 전문 파티셰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대표 상품인 '순수물'의 제조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

롯데백화점 식품MD팀 윤향나 CMD(신임상품기획자)는 "식품도 부띠끄 형태의 고급화 전문매장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게 최신 트렌드"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 10년새 4배↑

세수부족·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성 채무 253조1000억 정부, 적자국채 발행액 늘려 대안 없는 '빚 돌려막기' 지적

자식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가 지난 10년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만성적 세수부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까닭이다. 대응 자원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03년 60조1000억원에서 작년 253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4.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적자성 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9.7%로,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14%)을 5%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용자금이 아니라 외화자산 등과 같은 대응자산이 없어 상환 시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에 결국 미래 세대가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 중 공적자금 국제전환본은 30% 남짓 차지할 뿐 나머지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본이다.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메우고자

적자보전용 국제 발행량을 크게 늘리면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악성 채무가 해마다 급증했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올해 27조 7000억원에서 내년 33조1000억원, 2016년 37조6000억원까지 늘어나다가 2017년 31조1000억원, 2018년 23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를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당분간 일반회계 적자보전본을 갚아 나갈 계획도 없다는 얘기가 나뉘었다.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나 건전 재정 기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대안인페이(Pay-go) 원칙 도입과 유사·중복사업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은 여전히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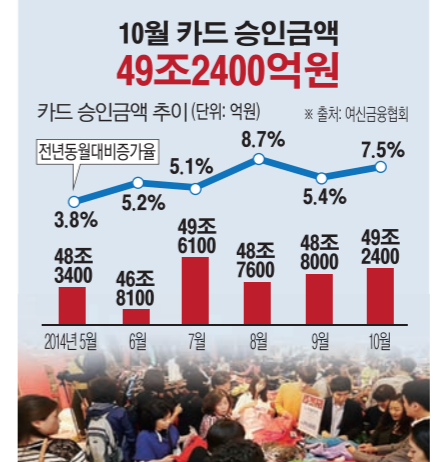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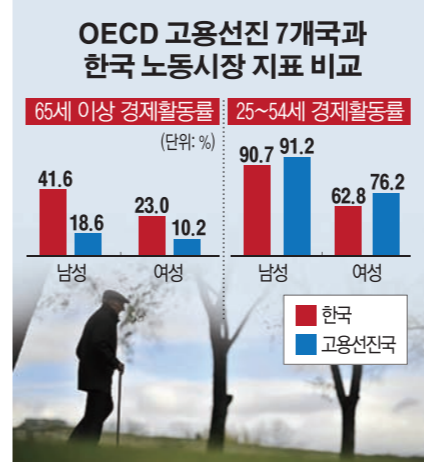
전민정 기자 puri21@

데이터 뉴스 Data News

한국 노인경제활동률 선진국의 2배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 '고용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연안안정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각각 41.6%, 23.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용 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기자 sympark@



카드승인액 증가 소비회복 신호탄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총 49조 2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총 49조2400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7.5%(3조24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증가율인 5.1%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체크카드 상승세도 이어졌다. 10월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3억90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엘레 기자 ellee@

Market 화요일 17~21일

커버스토리 '후강통' 관심종목 총정리

신종백 회장 ▶ 김범수 의장 ▶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동부 장남 김남호, '화재' 지분 늘린 까닭은

(동부판한농 부장)

누나에게 동부화재 주식 45만주 빌려... 지분 15.06% 확보
 년 순이익 3천억 캐시카우... 계열사 유동성 지원 담보력 보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판한농 부장이 동부화재 지분을 늘렸다. 연간 순이익 3000억원의 알짜 계열사인 동부화재의 보유 지분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룹 지원 자금을 마련한 만큼 담보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의 최대주주인 김남호 부장은 누나인 김주원 씨로부터 동부화재 주식 45만주를 빌렸다. 이로써 김 부장이 보유한 동부화재 주식은 1021만여주에서 1066만여주로 늘어났다. 소유비율은 15.06%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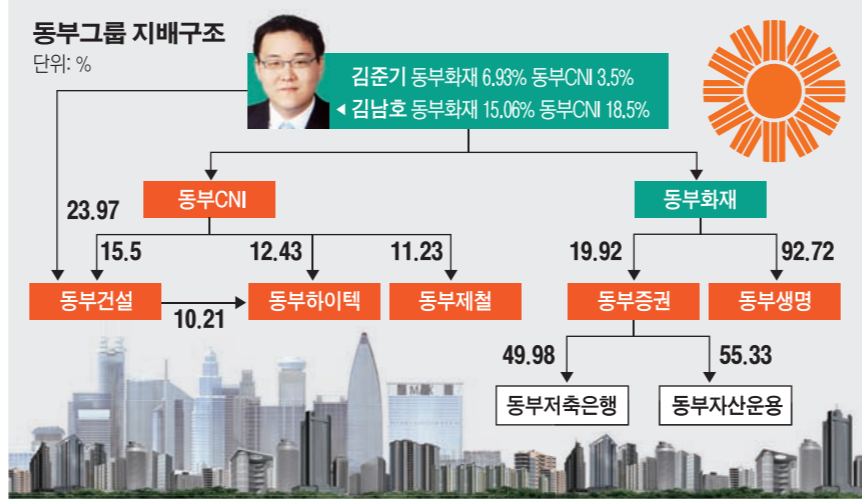
앞서 동부그룹 채권단과 동부그룹 측은 김 부장이 가진 동부화재 지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금융부분의 정점에 있는 동부화재 지분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는 채권단과 금융부분을

제조업부분의 위기로부터 끌어내려는 동부그룹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동부그룹 지분구조는 동부CNI를 정점으로 하는 제조업과 동부화재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동부그룹 한 축의 최정점에 있는 동부화재는 지난해(4~12월) 별도기준으로 순이익만 3060억원에 달하는 핵심 계열사다. 또한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지분 92.72%, 동부증권 지분 19.92%를 보유해 금융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동부증권은 동부저축은행과 동부자산운용 등도 보유하고 있다.

김 부장이 주식을 빌려 지분을 늘린 것은 보유 주식의 전량에 가까운 물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계열사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김 부장은 동부화재 지분 1066만 1520주(15.06%) 중 1021만 152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김준기 회장(6.93%)과 김주원(2.94%) 등 최대주주 측 지분은 31.33%다.



의 유동성을 확보해 동부CNI를 지원했다. 현재 김 부장은 동부화재 지분 1066만 1520주(15.06%) 중 1021만 152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김준기 회장(6.93%)과 김주원(2.94%) 등 최대주주 측 지분은 31.33%다.

한편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고 김준기 회장이 동부제철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동부그룹이 제조계열사를 포기하고 핵심 캐시카우인 금융계열사만 확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김 회장은 동부제철 지분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 있어 동부제철을 추후 되찾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희진 기자 heejin@

(홍라희 관장 동생)

홍라영 리움 총괄부관장 BGF 상장차익 400억원

홍라영(사진) 리움 총괄 부관장 외 특수관계인 2명이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인인 BGF리테일의 지분을 블록딜시켜 현금화했다. 홍 부관장은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의 동생이자,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의 누나다.

BGF리테일은 국내 최대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10월 말 기준 82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불황 중에도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828억원)에 비해 13.3% 증가한 93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알짜배기 기업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홍라영 외 특수관계인 2인은 24일 BGF리테일 지분 57만3830주(2.32%)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실시했다. 주당 가격은 7만원에서 7만2900원으로 이날 종가(7만2900원) 대비 할인을 0~4%가 적용됐다. 이번 블록딜로 홍라영 외 특수관계인은 402억원에서 418억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홍 부관장이 BGF리테일의 일부 지분을 현금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4월 상장한 BGF리테일의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자마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홍 부관장의 BGF리테일 보유지분은 7%에서 5%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홍씨 일가의 또다른 사업체인 보광그룹의 자금난과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경쟁업체는 물론 신세계,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기업의 거센 도전에도 독보적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향후 추가 오름세를 점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분 정리 가색연지 않다는 해석이다.

보광그룹은 유통과 종합레저, 전자, 광고대행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고(故)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1983년 설립한 TV 브라운관 제조업체 ㈜보광이 기업의 모태다. 홍 전 회장은 슬하에 4남2녀를 뒀는데 장녀가 홍라희씨, 차녀가 홍라영 리움



'상반기 IPO' BGF리테일 보호예수 끝나자 '블록딜' 52만주 처분 현금화 나서
 홍씨일가 보광그룹 자금난 재무개선 위한 매각 관측도

미술관 부관장이다. 장남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차남이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삼남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사남이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이다. 홍씨 일가는 ㈜보광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홍석규 회장(28.75%)을 비롯해 홍석조, 홍석준, 홍라영씨가 각각 23.75%씩 나눠 보유중이다. 하지만 보광그룹의 홍석규 회장은 최근 계열사 지분을 계속 처분하고 있다. 보광을 비롯해 보광제주, 휘닉스소재, 휘닉스개발투자, 한국문화진흥 등 계열사 대부분이 몇 년 동안 손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이 커지자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부 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보광의 대주주인 홍 부관장이 BGF리테일의 일부 지분을 처분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보광그룹은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부채 줄이기가 절실하다"며 "이 때문에 홍 부관장이 지분을 처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철규·김경아 기자 yoonck@

이순우 '민영화 자신감' 자사주 샀어요 이기원 '책임경영 의지'

(우리은행장)

주당 1만1300원으로 1만주
 행추위에 강한 '연임' 메시지

이순우(사진) 우리은행장이 자사주 1만주를 매입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우리은행 매각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책임경영을 통해 민영화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의 결단은 주주들에게 안도감을 줬다. 우리금융과 합병 후 지난 19일 재상장한 우리은행은 기관의 매도 공세에 주가가 1만1300원대까지 하락했다. 합병가액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30% 넘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행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우리은행은 곧바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의 자사주 매입은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이면에는 이 행장의 강력한 연임 의지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구성되기 전 이 행장은 가장 유력한 민영화 1대 수장으로 꼽혔다. 그의 연임을 의심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보름여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이광구 개인고객담당 부행장이 '서금회(서강금융인회) 후광에 급부상하면서 이 행장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행장의 자사주 매입은 민영화와 연임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다"며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8일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17.98%) 예비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3번 걸쳐 20억여치 사들여
 온라인·모바일 공격적 행보

신작 게임을 준비하며 네오위즈게임즈의 재도약을 다져왔던 이기원(사진) 대표가 자사주 매입으로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기원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9만2167주를 추가 매입했다. 평균 구매 가격은 2만1579원으로 약 20억원에 이른다. 이번 매입을 통해 이기원 대표는 총 19만2167주를 보유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네오위즈게임즈 온라인게임 사업을 총괄하는 김종창 부사장 또한 4602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추가 매입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2년 웹보드게임



을 시작으로 2005년 '스페셜포스', 2007년 '피파온라인2', 2008년 중국 '크로스파이어'를 통해 게임 퍼블리싱 능력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는 중국 크로스파이어 계약 변경으로 위기를 맞았다. 웹보드 게임 규제까지 더해지며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대표는 침체된 온라인 게임 시장을 부흥시키고 네오위즈의 재도약을 위해 '에스키', '블레스' 등의 신작에 총력을 쏟으며 실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꺼내들며 네오위즈게임즈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자사주 매입 배경에 대해 "빠르고 강한 조직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웹보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이자 책임경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청년창업의 꿈이 이루어지고

고객평가가 등급이 되고

ex 주유소의 착한가격을 만나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창조경제 휴게소

청년에게 창업의 꿈터, 가족들에게 즐거운 놀이터, 국민 모두를 위한 편안한 쉼터,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청년창업 휴게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8~39세 청년들의 매장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등급 휴게소

국민평가 등급표시 및 경쟁유도로 휴게소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겠습니다.

ex 주유소

정품·정량·정가의 추진방향과 함께 착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쾌적하게

12월12일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대응나선 유통업계

국내 유통업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업체	행사명	내용
롯데백화점	러블리 세일	MK트렌드, 베네통코리아, 린컴퍼니 등 세일, 페스티벌 60% 할인.
신세계백화점	450여개 브랜드 세일	고세 '마리끌레르' '데미안' '엠씨' 등 여성의류 30% 할인
현대백화점	파워 세일	해외 유명 브랜드와 패션 상품 10~30% 할인
AK플라자	블랙 쇼핑데이	무스탕, 구스다운점퍼, 패딩, 모직코트 등 겨울 아우터 50% 할인 판매
G마켓	슈퍼블랙프라이데이	소셜 부츠 26%, 벤츠 장난감 전동차 30%, 다이슨 청소기 30% 등
옥션	블랙 에브리데이	코치 지갑과 가방, 투미 백백, 풀로 패턴 할인
11번가	해외 쇼핑 블랙프라이데이	매일 두개 상품 연속 최저가 판매, 구매 금액 11% 적립
SSG닷컴	블랙 세븐데이즈	의류, 잡화 등 최대 75% 할인, 20% 할인쿠폰 지급

“해외직구족 잡자” 주도권 회복위해 연합전선

해외직구 2조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작년 1조 1509억원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1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2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국내 유통업계가 해외직구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벌이고 노세일 품목까지 할인에 동참시키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해외직구족 잡기에 한창이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불량품 등 배송에 불안해하거나, 환율 및 관세 비용 계산 등 복잡한 구매 단계 문제로 해외직구를 꺼리는 고객들을 정초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로 몰릴 해외직구족들을 겨냥해 국내업체들이 손잡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주도권 회복을 위해 함께 움직인 것이다.

◇온라인몰, 직구보다 싸게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 해외직구족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다.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앞세우고, 합종연횡을 통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도 준비 중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이날 11번가, 롯데닷컴, AK플 등 10여개 국내 온라인몰들이 일제히

11번가·롯데닷컴 등 10곳 참여 복잡한 구매 꺼리는 고객 겨냥 국내외 인기상품 최대 50% 할인

온라인몰 대대적 세일 행사도 벌여 백화점 '편집숨·기획행사전' 봇물

대규모 할인행사를 연다. 각사별로 국내외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차별화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는 해외 이벤트로 국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며 "한국 소비자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고자 국내 유통업체들이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온라인몰 업체들은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세일 행사를 진행 중이다. 11번가는 이달 30일까지 '해외쇼핑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한다. 옥션은 이달 28일까지 '블랙 에브리데이' 행사를 열고 해외직구 인기상품 100가지를 최대 70%까지 싸게 판다. G마켓도 같은날까지 소셜 부츠, 유아용 벤츠 전동차, 다이슨 청소기 등을 25~30% 할인해 준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SSG닷컴은 30일까지 80~9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온라인쇼핑몰 위즈워드도 이달 30일까지 해외 및 국내 어패럴 카테고리부터 백&액세서리, 슈즈, 홈&키즈 카테고리 등 전 카테고리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90% 세일한다.

◇백화점들, 인기 수입상품 직접 보고 사세요 = 롯데백화점은 최근 서울 명동 본점에 해외직구 토탈 편집숍 '비트윈'을 오픈했다. 현지 판매가의 13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 관세 부가세와 배송비를 고려할 경우 해외직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다음달 초에는 이탈리아 명품 셀렉트숍과 연계한 직구 사이트 운영과 직구 상품 픽업 서비스도 시작해 직구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7일까지 '러블리 세일' 행사를 열고, MK트렌드(11월 28일~12월 7일), 베네통코리아(11월 25일), 린컴퍼니(11월 28일~12월 4일) 등과 연계한 단독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또 이달 30일까지 '부츠홀릭 페스티벌'을 열고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해외직구족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브랜드들을 발굴, 백화점 편집숍에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모든 점포에서 자사 단독 브랜드와 인기 국내외 브랜드 등 450여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미국 유명 아동브랜드인 티컬렉션의 특가 행사를 열어 유아동복을 직구하는 젊은 여성층을 잡는 등, 다양한 행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해외 유명 브랜드와 패션 상품을 10~30% 할인 판매하는 '파워 세일'도 진행 중이다. 이선애·김혜진 기자 isa@

기대 패션·화장품 “역직구족 잡아라”

중국어·영어 사이트 개설 등 분주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도

국내 패션·화장품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 트렌드 속에서 '역(逆)직구족'을 잡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직구란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해외직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하이타오족(중국의 해외직구족)'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FTA 체결로 무관세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국내 온라인 시장의 큰손으로 중국인이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5일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조원에서 올해 2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4조원으로 다시 두 배 이상 성장하고, 2016년에는 106조원, 2018년에는 200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타오족을 잡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패션 업체들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은 올 상반기 중국어판 직구대 사이트를 개설했다.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쿠론, 슈프리카보나, 럭키슈에프 등을 비롯해 SERIES, CUSTOMELLOW, QUA 등 6개 브랜드

를 판매하고 있다. LF는 최근 온라인몰에 중국어와 영어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향후 최적화된 플랫폼과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모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역직구족을 잡기 위해 역직구 사이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 16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빈폴을 비롯, 내년에 중국에 오픈할 매장을 선보일 제조·유통업체인류(SPA) 브랜드 예잇세컨즈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일모직 측은 "빈폴이나 예잇세컨즈 같은 대표 브랜드는 물론, 아직 중국에서 생소한 브랜드까지 대거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체들은 주로 현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역직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다오바오 쇼핑몰에 입점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입점된 브랜드 중 라네즈는 전체 검색어 가운데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LG생활건강도 이달 초 알리바바 산하 B2C 해외직구몰 티몰 글로벌에 입점해 중국 직구사업에 나섰다. 해외 직구몰에 처음으로 선보인 한방화장품 후 공진향 인양 2종 세트는 예약판매를 시작하자 열흘 만에 5000세트가 매진되는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 백화점에서 후 브랜드의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16% 성장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폭발적"이라며 "여세를 몰아 역직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현지화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고민 전자 “가격 형평성·AS 어찌나”

가전업체 매출증대 큰 도움되지만 배송 중 파손 등 부작용 잇따라

스마트폰에 이어 가전제품 해외직구가 늘면서 국내 전자업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가 국내 가전기업의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배송과 애프터서비스(AS) 등 여러 분야에서 쉽지 않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TV,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등의 가전제품의 배송대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배송대행업체 톨테일은 지난 3개월간 4850건의 TV 배송 건수를 기록, 지난해 3450대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등도 15%가량 증가했다.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에 전자제품을 직접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19%로 의류·잡화(3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열풍이 TV 등 가전제품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배송 중 파손에 대한 AS와 국내 제품가격 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

성전자는 올 들어 월드워런티 기간을 단축하고 현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LG전자도 올 4월부터 해외직구 제품도 국내서 AS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지만 역시 현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직구와 국내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직구는 환율이 불가능하고 배송 중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AS요청이나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특히 해외 제품은 국내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에서 부품을 공수해 와야 하는 등 AS 과정이 까다롭다.

또 국내 가전기업들은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해외보다 국내에서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불명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제조사와 직영판매점들은 커브드 UHD TV와 OLED TV 등 프리미엄급 TV와 생활가전의 가격을 낮추며 국내 소비자 불잡기에 나섰다.

국내 가전기업 영업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해외직구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앞으로 국내 영업에서 타격이 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0.1%가 아쉬운 시대, 5.5% CMA를 찾았다!

최고 연/세전 5.5% CMA

- 은행통장에 천만원 정도의 예금은 있다
- 매달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쓴다
- 자질한 쿠폰이나 포인트보다 현찰이 좋다

신한명품 CMA R+ 계좌

- CMA RP 수익률우대 서비스 적용 및 CMA R+카드 사용조건
- CMA R+ 카드만 사용시 연 3.2~4.5% (1천만원 한도, 기본수익률 1.9%) 14.11.14기준

1등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 만나 최고 연 5.5% CMA가 태어났다!

CMA RP 수익률우대 서비스를 적용받고, CMA R+신한카드 발급 시,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연 최고 5.5% CMA수익률을 드립니다

CMA R+ 카드 월 사용액	CMA 기본수익률	CMA RP 수익률 우대서비스 (300만원 한도)	CMA R+ 카드 추가수익률 (1천만원 한도)	연 수익률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9%	+ 1%	+ 1.3%	= 연 4.2%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1.7%	= 연 4.6%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1%	= 연 5.0%
100만원 이상			+ 2.6%	= 연 5.5%

CMA R+ 가입 방법

- 콜센터(1588-0365)로 직원 방문계좌 개설 신청 (*5인 이상 가능)
-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PWM센터 방문
-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사 CMA 계좌 보유 고객)

5명이 모이면 신한이 찾아가5~

풍성한 카드혜택은 기본!

- 주유 | GS칼텍스 주유 시 할인
- 영화 | 맥스무비 등 영화매에 할인
- 테마파크 |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할인
- 뷰티 | 유명 뷰티 헤어샵 할인
- 스포츠 | 프로야구 및 프로농구 경기 할인

상담전화: 1588-0365 /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참조

판매사 신용등급 : 신한금융투자AAA(한기평,2014.1)의 100%자회사 / 신한금융투자 AA(한기평,2013.12)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구성 및 적용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적용의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지점 및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시필 제4-07300호(2014.10.29 ~ 2015.10.27)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탄소 기타 치는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전주 완산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센터 내 탄소산업 전시장을 돌아보며 탄소로 만든 기타로 연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월세임대 주택 공급 늘리고
정규직 고용 유연성도 확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내달 중하순께 발표

최경환 경제팀이 '구조개혁'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일본 경기부양책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지연으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체질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아베노믹스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목표로 한 최경환식 구조개혁은 금융과 노동, 교육, 임대시장 부문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본 틀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 금융생태계 개혁,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계기업 구조조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월세 임대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적용하거나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안이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

진된다. 금융 개혁을 위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술종합DB·기술신용평가기관을 구축해 담보·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지식재산 기반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이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요구에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아진다. 기업 부채 관리와 관련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부채 500억원 미만 기업도 기속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한시법인 기속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좀 더 무게를 두되, 기존의 확장적 재정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과제를 모두 충실히 이행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정부 제출 예산부수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이르던 25일, 늦어도 26일까지 지정기로 했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에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경우라도 일부 포함될 것

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스냅샷에 인상 스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사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폐지 등이다. 김미영기자 bomnal@

정부제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담배소비세율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50%에서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
- 법인세법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 도입
- 소득세법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초과배당이익 증여세 부과
- 기부금법 - 기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국가기부금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
- 근로소득 중대시각 기업 세제지원 신설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기부장려금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 역외원세 제재 강화, 제2년세의무 대상 과점주의 범위 확대
- 국세재정 증여 과세 강화
- 해외금융거래 미신고 제재 강화
- 국세징수법 - 입류재산 관련 질문, 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있는 친족 포함
- 관세법 - 해외여행자 반입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조세법특별법 - 조세법치행위 공소시효 연장
- 국민체육진흥법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의 임의로 부가금 징수제도 폐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설치

지역구 사찰지원 수백억 '쪽지예산'

봉은사·범어사 등 '관광자원 개발' 명목
여야 의원이 함께 예산증액 요구하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가 전국 사찰에 수백억원의 퍼주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쪽지예산은 없다"며 민원성·신심성 예산 배정을 극구 부인하던 여야의 '쪽지예산' 실체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최근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세출 예산 중에서도 무려 30여건 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 감액 심사는 주로 예산을 깎는 작업임에도, 여야는 이런 식으로 증액을 병행해 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 심사 외종에도

'내 지역구 예산 좀 반영해 달라'는 주변의 요구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총 2167억원 규모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중 무려 369억원가량을 각 사찰의 새 건물을 올리는 데 배정했다. 정부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던 사업들로,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전형적 퍼주기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새정진민주연합 운영석 의원은 "종교문화시설에 국·민·외·영·정

및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100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봉은사의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100억원을, 같은 당 김도읍·문대성·이재익 의원은 부산 범어사 선문화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7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듯 사이좋게 증액 명단에 이름을 함께 올린 경우도 있었다. 전남 장성군의 백양사 주변 기반시설 조성예산 40억원 증액 명단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호준·황주홍 의원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35억원을 증액한 충북 보은군의 범주사 문화교육관 건립예산 증액에는 새누리당 경대수·박덕흠·박성호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영민·박만주 의원이 함께 했다.

예산소위는 이 외에 전남 장흥군 보림사 선다체험관 신축에 20억원(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 경북 영주시 부석사 관광지 조성지원에 3억원(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렇게 예산소위를 거쳐 사찰에 퍼준 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될 공산이 크다. 예산조정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으로, 견제할 기구도 없다. 전직 예결위원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예결위가 거의 전권을 갖고 예산을 다루는 만큼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역구 정치인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지역예산 배정이란 점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예산삭감 보류사업 '39조' 밀실 조율

소위서 합의 안된 70개 사업
'창조경제' 등 쟁점 안전 다수
위원장·여야 간사 2명 모여
회의록 없이 삭감여부 결정

해해 예산을 심의 중인 여야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70개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밀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만이 머리를 맞대고 총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의 삭감 여부를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4일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위에서도 삭감 보류 사업 70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예결위 여야 간사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준석 의원은 이번 주중 만나 삭감 보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심사 보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이거나 새마을운동사업, 담배세 인상을 전제로 한 사업 그리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정부 안대로라면 70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8조849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부처에서 올린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이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

의 광범한 입장차로 보류돼 있는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예산 새로이 추진되는 '창조경제벨리 육성 지원 사업' 307억8300만원,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271억3000만원(올해 71억원) 등이 보류돼 있다. 여기에 각각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예산 55억원,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 사업' 5억원도 있다. 안전행정부예산 올해 4억8000만원에 그쳤던 '새마을운동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엔 10배 이상 늘린 56억5300만원을 요구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급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올해 112억7000만원에서 내년 1521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인 탓에 삭감액 결정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세월호 배상·보상 TF 회의



안호대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등 실무진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배상·보상 TF 2차 회의에서 인권을 논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세모녀법' 교육비 추가예산도 교육청이 떠맡나

교육급여 대상자 40만명 증가
내년 실제 예산은 1544억 소요
복지부 "부족한 440억만 지원"
시도교육청 "붕어나" 하소연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을 두고 이번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다투고 있다. 정부가 교육급여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25일 복지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

르면 최근 여야가 기초생활수급제도 가운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롭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40만명가량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이 44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가하는 예산은 154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이처럼 예산을 낮춰서 발표할 것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수급료 및 입학비 지원 사업(4000억원)은 계속 시도교육청이 맡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부족한 학용품비, 교재비 등 44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안에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재정 소요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국책 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을 왜 교육청이 떠맡아야 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상당 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현재 누리과정으로 인한 예산 문제도 골치 아픈데, 시도교육청이 무슨 붕어나"고 하소연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친족 간 증여공제액 확대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합의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세금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친족 간 증여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원외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먼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재산 증여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수증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내면 우리나라에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증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전망이다. 해외금융거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해외금융거래 신고 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내는 벌금을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현행 10% 이하)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0% 이하(현행 10% 이하)로 높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

호텔 등급 무궁화 → ★ 변경

앞으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무궁화에서 별의 개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됐던 호텔업 등급을 외국과 같이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으로 변경했다.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박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 지정 숙박업소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근로자수는 삼성, 증가율은 LG

10대그룹 최근10년 고용증가 분석

삼성 상장사 13곳 13만8700여명 늘어

LG 11개사서 10만8768명... 70% ↑

SK·현대차는 M&A 따른 증가 효과

포스코, 평균치 크게 밑도는 7% 그쳐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삼성전자	80594	84721	84188	10799	95794	98295
현대차	54115	55629	55984	57105	63199	63815
SK텔레콤	4308	4542	4441	3955	4192	4359
LG전자	31633	29496	29554	35286	38363	37681
롯데쇼핑	16246	8542	9081	24801	26943	26102
포스코	19004	17307	16516	17553	17832	17919
현대중공업	24968	25308	24982	24948	27246	27938
GS건설	3778	4082	4972	7053	6789	6571
대한항공	14942	14890	15734	18191	18347	18339
한화	2775	2877	3164	3642	3898	4232



국내 10대그룹 상장사(금융회사 제외) 중 삼성그룹과 LG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고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LG그룹 상장사들의 근로자 증가율이 10대 그룹 중 가장 높았다. 또 숫자로는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근로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 다른 10대그룹 상장사의 근로자수는 대형 M&A에 따른 계열 편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 소속 상장사 근로자수는 올 6월 말 현재 59만77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5년 말 45만2338명과 비교해 33%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그룹별로 보면 LG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근로자 증가율이 가장 눈에 띈다. LG그룹 소속 상장사 11곳의 총 근로자수는 올 6월 말 현재 10만8768명으로 10년 전 6만3855명과 비교해 70%(4만4913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나는 등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계열사 중에서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의 종업원 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 채용 종업원수는 2005년 1만5492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 3만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 상반기 현재 3만2816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가 늘었다. LG전자 종업원수도 올 상반기 현재 3만7681명으로 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한 근로자수로는 삼성그룹이 돋보인다. 지난 2005년 삼성그룹 상장사 13곳의 채용자수는 13만879명이었다. 올 상반기 현재는 16만9612명으로 10년 전보다 3만8700여명이 늘어나는 등 LG그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0대그룹 상장사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삼성전자의 근로자수는 8만594명이었다. 올 상반기

현재 반기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회사 근로자수는 9만8295명으로 1만7701명이 늘어났다.

반면 SK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근로자수는 올 상반기 4만1814명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2만명이 SK하이닉스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M&A에 따른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규 채용이 늘어났지만 현대건설 인수 등에 따른 근로자수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낮은 근로자수 증가율을 보인 곳은 포스코그룹으로 10대그룹 평균치인 33%보다 크게 밑도는 7%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한진그룹도 각각 11%와 1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화그룹 상장사들의 근로자수 증가율은 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 총 근로자수는 올 상반기 현재 7345명에 불과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국회, 제2롯데월드 현장점검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고가 논란’ 이케아 공정위, 실태 조사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만 판매가격을 유독 높게 책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 만 고가 정책을 쓴다고 해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해 내년 2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 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엔 착수하는 가격조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케아의 고가 정책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메릴린치 투자 1조원 손실’ 사과한 안홍철 KIC 사장

崔부총리, 추가 부실 조사에는 ‘부정적’

안 “투자 적절치 않다 지속 반대 기재부, 운영위원회에 투자 중용”

최, 기재부 관여 의혹 제기엔

“담당자 이미 퇴사 조사 불가능”

한국투자공사(KIC)가 2008년 1월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정부가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 20억달러, 우리돈 2조원을 부실투자한 사건에 대해 안홍철 당시 KIC 감사이자 현 사장이 입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6년여가 지난 올 10월에도 정치권에서 새로운 의혹들을 무더기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메릴린치 투자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더욱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의 연세에 대해 학후배이자 같이 하숙생활을 하기도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IC 부실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한국투자공사(KIC) 메릴린치 2조원 부실투자 사건 일지

	※ 출처: KIC, 박법계 의원실
2007년 12월 중순	메릴린치 본사와 투자관련 논의 시작
2008년 1월 7일	메릴린치로부터 공식 투자요청 제안 받음
2008년 1월 12일	KIC 등은 메릴린치 투자 내용 이명박정부 인수위에 보고
2008년 1월 14일	KIC 운영위원회 투자 심의 의결
2008년 1월 15일	메릴린치의 의무전환우선주 20억달러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
2008년 2월 1일	20억달러 투자 집행
2008년 5월	안홍철 KIC 당시 감사 퇴직
2008년 하반기	KIC 내부 메릴린치 투자 관련 특별감사
2009년 1월 1일	뱅크어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인수
2009년 1월 말	KIC 내부 1차 특별감사보고서 폐기
2009년 2월	인수위에 메릴린치 투자 보고 내용 등을 삭제한 KIC 내부 2차 특별감사보고서 작성
2010년 8월	감사원, KIC 해외투자실태 감사결과 발표
2014년 10월	박법계 의원, 국정감사에서 KIC 부실투자 경위와 성격, 최종 승인 과정에 관한 의혹 제기

안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메릴린치 투자에 대한 사과 발표와 함께 당시 적절하지 않은 투자였다는 점을 KIC에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는 “2008년에는 대공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투자 시점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또 가격이 떨어져 풍금이 될 텐데 잡으면 손이 베게 되는 ‘떨어지는 칼’인 메릴린치에 현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또 KIC 운영위원들이 당시 조인강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 심의관의 15분 설득 후 입장이 돌변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운영위원들이 메릴린치 투자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지만 후에 기재부 국장이 투자를 하자고 하니가 아주 쉽게 빨리 처리됐다”며 “돈을 위탁하는 기관이 기재부가 투자를 하고자 하니가 운영위원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짐작한다”며 조심스럽게 언

급했다. 기재부 등 행정기관이 운영위에 참여하는 것 외에 투자 등을 지시·감독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KIC 부실투자에 기재부 직원들이 상당 부분 관여했고 정권 차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KIC 메릴린치 투자는 충분히 감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람들이 이미 퇴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우리 내부에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KIC의 메릴린치 투자는 공식 투자 요청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투자 결정이 의결되는 등 경위와 목적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투자 손익은 투자 첫해 -10억2000만달러로 누적손익률은 -50.9%로 반토막 났으며 2011년에는 -15억4000만달러(-76.77%)까지 떨어졌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도 -7억2000만달러(누적 손익률 -35.82%)로 집계. 여전히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해고 위기 경비원 5만여명 방지대책 예산 ‘고작 23억’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연 72만원 지원... 3200명 수혜

野 “285억 편성... 대란 막아야”

정부가 2017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아파트 경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총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의 경비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또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으로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관리한다.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를 계획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지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기준 15만6000여명 중 60대 이상이 5만여명에 달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미 기자 boom@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물의 전 검찰총장, 이번엔...

부인 골프연습장 운영권 다툼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72타석 규모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6분께 A(여)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골프연습장에 A씨 지인인 B씨와 B씨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등 10여명이 들어닥쳤다.

이후 B씨 등은 A씨와 면담을 요구하며 연습장에 들어서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비원 등 연습장 직원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습장 정문이 파손되고 집기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야간공공폭행 혐의로 연습장 직원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과 맞서 주먹을 휘두른 B씨와 용역업체 직원 등 13명도 야간공공폭행 및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연습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가 입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지인 2명이 각각 지분 50%를 갖고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A씨에게서 투자를 받아 내 지분을 넘겨줬는데 A씨가 운영권을 전부 가져가려고 해서 지인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지분 50%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A씨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운영권 싸움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가리겠지만 양측이 폭력을 행사한 이상 조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의 한 골프장 기숙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소환을 앞둔 전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B씨 측과 충돌 당시 연습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피소된 전 검찰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learand7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식당 조리사 모집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서 직원 식당 조리사를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직원식당 점심식사 조리로 식수인원은 1일 30명 내외이다. 공단 측은 1인 근무이며 자동식기세척기를 구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3개월 계약직 시간선택제 일자리며 파견근로는 희망하지 않는다.

이력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원자는 1년 이상의 경력 및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요구된다. 근무예정지

모집요강	
모집직종	한식조리사
직무내용	직원식당 점심식사 조리
접수기간	2014년 12월 5일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3개월
경력조건	1년 이상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장년층

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이 제공된다. 한 달 만근시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유혜은 기자 euna@

'KB재건' 소매금융 드라이브 나선다

20대 대상 '락스타 클럽'
30대 '직장인통장' 이어
50대 장기고객 연결위해
'스토리 패키지' 상품 강화

새 수장을 맞이한 KB국민은행이 리테일(소매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사고와 내분사태로 약화된 영업력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확보해 리딩뱅크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지휘봉을 잡은 윤종규 회장 겸 행장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존 20

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던 '락스타 클럽'을 30대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클럽은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총 1만명 이상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극심한 보릿고개 속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금융사고와 내분사태를 겪으면서 KB국민은행의 고객 이탈이 심각하다. 지난 9월말 기준 KB국민은행에 10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 고객의 예금 총액은 2조9000억원 정도다. 하나(7조3000억원), 신한(5조2000억원), 우리(4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다. 이에 KB국민은행은 20대 락스타 클럽 고객들이 자연스레 30대 직장인통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50대 이후까

지 장기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KB스토리 패키지' 상품 라인업도 강화했다. 18세 이하 청소년 'KB주니어스타', 20대 대학생 '락스타', 30대-40대 직장인 'KB국민첫 재테크'·'직장인우대적금', 50대 이후 은퇴대비 고객 'KB연금우대' 등이다. 윤종규 신임 회장 겸 은행장도 리테일 영업력 회복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모든 채널을 고객중심으로 재편하고 어떤 경로로 방문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아웃바운드 마케팅도 더욱 체계화해서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잘하는 소매금융은 더욱 차별화할 것"이라며 "KB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이 순간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전국금융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1층에서 진행된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에 '밀실관치인사'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내정설 반발... 은행연합회장 후보 추천 연기

금융노조 "밀실관치인사 반대"
28일 총회 전 다시 논의키로

차기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후보 추천이 연기됐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이전 다시 한번 간담회 형식의 임시 이사회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1층에서 이사회를 열어 박병원 회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전국금융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난입하면서 후보 결정을 연기했다. 박병원 회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나와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후보를 결정하지는 못 했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총회 전에 한번 더 간담회 형식의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를 연장할 뜻이 없다"며 "총회 전에 후보 추천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은행장들은 취재진이 차기 후보 선정에 관해 묻자 "자세한 사항은 박 회장을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동조합장 등 10여명의 조합원은 이사회가 진행되는 회의실로 난입해 "회장 선출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회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가 결정을 유보했지만 28일로 예정된 은행연합회 총회는 계획대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22개 정회원의 투표 또는 서면의결을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 앞서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허영구 전 한국시티은행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알려져 전국금융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이사회를 가진 바 없으며 특정 후보를 내정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우림 기자 hura@

롯데손해보험, 퇴직연금 1조 클럽 가입

롯데손해보험이 퇴직연금 1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일부 손보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것과 상반된 성과다. 출범 10년째인 2017년 시장점유율 10%, 총자산 15조원 규모의 대형사로 발전한

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덩치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2700억원을 넘었다. 손보사 퇴직연금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운용자산 관리 기준으로 롯데손보의 퇴직연금은 그룹 계열사 물건이 3월 말 4268억원에서 10월 말 5004억원으로 732억원 증가했다. 비계열사 물건도 같은기간 4612억원에서 5265억원으로 653억 원 늘었다. 2011년 말 롯데손보의 퇴직연금 계열사 비중은 90%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50% 톨을 맞추기 위해 비계열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kkk@

쉽고, 편리한 투자의 시작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콧!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p>0%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p>	<p>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p>
<p>0원 매매타이밍 고민 NO!</p>	<p>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p>
<p>0원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p>	<p>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p>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택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4-03987호(2014.06.20~2015.06.19)

내달 출범 통합 '하나카드' 초대 수장에 정해봉 내정

〈하나SK카드 사장〉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법인 '하나카드'의 초대 수장으로 정해봉 하나SK카드 사장(58·사진)이 내정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하나SK카드, 외환카드의 통합카드사 수장으로 정 사장을 지목했다. 정 사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임명된 정 사장은 지난해 독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모바일카드 활성화를 추진해 하나SK카드를 모바일 강자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 사장은 하나은행 영업추진그룹 부회장, 전략사업 그룹 부회장 등 하나금융 내에서 요직을 거처온 인물이기도 하다. 정 사장은 전주고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은행에 입사한 뒤 1991년 하나은행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하나은행 남부·호남 지역 본부장, PB본부장, 영업추진그룹 총괄 부회장, 전략사업

그룹 총괄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혁승 외환카드 사장은 하나SK카드의 2대 주주인 SK텔레콤의 지분율이 줄면서 물러나게 된 SK텔레콤 출신의 김성봉 부사장의 후임으로 발령날 예정이다.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도 완료됐다. 하나SK카드의 현재 5본부 32개 팀, 외환카드는 2본부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나 통합 후에는 두 조직을 합쳐 7개 본부, 42개팀으로 새롭게 꾸려진다. 현재 양사 모두 팀별로 예비발령을 통해 인력을 배치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 본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다. 본안건이 승인되면 합병법인인 하나카드는 12월 1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선임, 정관변경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를 열고 정해봉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서울 중구 다동 하나SK본사에서 하나카드 출범식을 갖는다. 박엘리 기자 ellee@

신종백 "우리銀 관심 줄어...증권사 노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예비입찰에 재무적 투자만 가능



신종백(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지난 21일 새마을금고 제주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예정된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매각 예비입찰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 2011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입찰에 참여했을 당시 보다는 적극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 등을 고려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이 입찰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우리와 같은 현상이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은행 예비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지분 인수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우리은행 인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 야기다. 신 회장은 우리은행을 인수하지 못해도 증권 및 자산운용 등 다른 업종 금융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증권사 인수를 통해 도매금융이 확보 되면 새마을금고를 한국판 '도이체뱅크'로 만들 수 있

다는 것이 신 회장의 구상이 다. 도이체뱅크는 협동조합을 모태로 출발해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으로 성장했다. 신 회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예대금리로 먹고 살기에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수의 창출을 위해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다사업 다전제 기업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주식보다는 대체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신 회장의 이메일로 증권권 생보사 인수 제안건이 들어왔지만 신 회장은 생보사에 관심이 없고 손보사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LIG손보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 신 회장은 "보험공제 사업은 이미 생보업계에 12위권이다. 손보 영역이 작아서 MG손보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kkk@

행복의 온도

싱싱한 김치 한 포기가
1도를 올립니다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또, 1도

정성 깃든 도시락 하나가
또, 1도

SK는 올 겨울도 '행복나눔 계절'을 통해
행복의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행복한 나눔’ 2014 SK 행복나눔 계절

2005년부터 10년 동안 지속해 온 SK 행복나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SK 8만 임직원이 '행복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SK 행복나눔 계절은 매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최고경영진, 임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협력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장 나눔 봉사,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가운 겨울 날씨가만큼이나 마음이 시린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OK! SK**

삼성 스마트폰 부활 'OLED'에 달려있다

높은 패널 원가 탓 중저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뒤처져 내년 하반기에 OLED 사업부 손익분기점 넘어설 듯 스마트폰 원가절감 신호탄... IM부문 실적회복 기대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의 실적 회복이 OLED패널의 원가 절감에 좌우될 전망이다. 삼성 스마트폰 대부분에 OLED패널이 탑재된 상황에서 OLED사업부의 손익분기점 돌파 시점이 IM부문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디스플레이사업부와 이트레이드증권에 따르면 올해 연간 LCD패널 모듈 가격은 전년 대비 21~38% 감소한데 반해 OLED패널 원가는 5~10% 하락하는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격이 경쟁사 대비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에서 디스플레이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만큼, 높은 패널 원가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뒤처졌고 이는 올 3분기 IM부문 실적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태블릿 시장의 성장을 과신한 OLED 투자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열린 '글로벌전략 협의회'에서 올해 태블릿 PC 판매 목표를 1억대로 잡았다. 하지만 태블릿PC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1억대를 목표로 증설한 OLED 설비로 인

스마트폰용 LCD · OLED 제조원가 증감을 추정치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디스플레이사업부 · 이트레이드증권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LCD 5.0인치 (1280x720 LTPS)	-14	-8	-14	-7
OLED 5.0인치 (플FD급 1920x1080)	-6	-5	-3	-5

해 가격이각 등 고정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OLED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은 이달 중국 시장에 출시한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A' 시리즈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A 시리즈에 모두 OLED 패널을 탑재했다. '갤럭시 A3' 가격은 30만원 초반대로, 샤오미 '미4', 화웨이 '야너' 등과 비슷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사양은 낮게 구성했다. OLED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에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원이다. LCD사업부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OLED사업부가 2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전체 영업이익을 잠식했다. 김지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패널의 LCD 적용 확대라는 간단한 정답이 있지만 OLED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존재한다"며 "OLED 부분의 손익분기점 수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 IM부문의 원가 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용 기자 guily@



“어려울 때 잘해야 진짜... 올 800만대 넘자” MK ‘글로벌 4위’ 특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수출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 800만대를 넘어서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열린 수출확대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 4위 도약을 주문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시장 상황이 여유치 않지만 올해 800만대 판매를 넘어 서면, 르노닛산 자동차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선다. 정 회장은 이날 국내외 판매현황을 보고 받고 “불리한 시장 여건을 극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력을 보여주자”며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내자는 말은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평소 가르침이다. 이달 25일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탄생 99주년이다. 그룹의 경영진이 모두 모이는 수출확대전략회의에서 창업주의 정신을 언급, 위기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올해, 연초 수립한 전략 목표(786만대)보다 14만대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올 들어 10월

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했다. 800만대 판매는 2012년 700만대 돌파 이후 2년 만이다. 현대기아차의 선전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에서의 판매가 견인했다. 우선 중국에서 1~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난 142만1650대를 판매했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춰 올해 170만대를 웃도는 역대 최대 판매가 유력하다. 브라질에서의 성과는 더욱 극적이다. 전체 자동차 업체들의 1~10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월드컵 마케팅 등을 적극 활용하며 같은 기간 7.2% 판매가 신장됐다. 인도 역시 연초 사업 목표를 초과하고 있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더 엘리트 i20(신형 i20), 엑센트 등의 신차 효과로 8%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 전체 자동차 업체 판매 증가율 1.9%를 크게 추월한 수치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내년 ‘신승시장’ 공략 강화, △라인업 확대, △품질 확보, △생산 증대 등을 통해 800만대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알뜰폰도 과격지원금

최신 프리미엄폰 '갤노트4'에 헬로모바일 32만6000원 지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업계 최초로 최신 프리미엄급 단말기에 과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동통신 3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에 대해 지원금을 높이고, 이통3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요금제를 함께 제시해 알뜰폰으로의 변호이동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25일 CJ헬로비전에 따르면 자사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5만원대 LTE요금제를 이용하면서 프리미엄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치고 빠지기 특가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말기유동구조개편(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요금제가 공시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갤럭시 노트4에 대한 지원금을 SK텔레콤보다 10만원 이상 높은 32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같은 기종에 대해 LTE 100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23만원, LTE8 무한대 89.9요금제), KT(25만1000원, 순 완전무한99 요금제) 지원금 역시 CJ헬로비전이 제시한 금액보다 7만~9만원 가량 낮다. 이번 특가 행사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14일에는 신청순 200명, 지난 21일은 신청순 100명에 한해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 결과 5분도 안돼 완판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LTE 시장에서 이통3사와 경쟁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했다”며 “실제 이통3사에서 자사로 변호이동한 고객이 전체 고객의 9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향후 과격 특가 대상 프리미엄급 단말기 목록에 갤럭시노트 엣지, 소니 Z3, G3 캣6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신제품·신기술 꼭꼭 숨겨라” 삼성·LG전자 ‘CES 철통보안’

내년 1월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앞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CES에서 공개된 TV 신제품의 경우 1년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만큼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이를 업체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가전사업부, 마케팅부서가 밤샘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CES 행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 긴 협력 범위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신제품 정보 공유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CES와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정보에 대해 모두 ‘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두 회사는 최근 CES 2015를 앞두고

‘혁신상’ 제품 구체적 정보 함구 “내년 행사장에서 첫선” 언급만 CEA(미국가전협회)로부터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삼성전자는 TV 11개, 모니터 3개, 스마트폰 3개, 웨어러블 기기 2개, 태블릿 2개, 반도체 4개, 생활가전 3개, 프린터 2개 등 총 36개의 혁신상을 받았으며, TV 제품 중 일부는 CES 2015 행사에서 처음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전자는 TV 4개, 생활가전 4개 등 총 10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신제품에 대해서

는 공개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CES에서 공개할 제품에 대해 “OLED TV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가 CES 2015에서 각각 ‘퀵타겟(양자점) TV’, ‘올레드(OLED) TV’를 앞세워 화질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퀵타겟 TV는 퀵타겟 필름을 부착해 화질을 개선한 LCD TV다. 두 제품 모두 우수한 색 재현력으로 선정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CES 2015는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CES는 TV 부문에 특화돼 있어 매년 글로벌 업체들의 TV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제일기획, 영 쇼퍼마케팅 '아이리스' 인수



제일기획이 영국의 독립 쇼퍼 마케팅(Shopper Marketing) 전문회사인 '아이리스 월드와이드(Iris Worldwide)'를 인수했다. 제일기획은 아이리스 지분 65%를 432억원에 인수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 취득할 예정이다. 쇼퍼 마케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 행동에 나서는 '쇼퍼'를 분석해 실제 구매에 이르도록 이끄는 활동을 뜻한다.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제일기획 임대기 사장(가운데)이 아이리스 공동대표 스투어트 샌리(왼쪽), 이안 밀너와 인수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일기획

정유업계 불황에도 R&D투자 이어간다

SK이노·GS칼텍스 예년 수준 유지... 에쓰오일은 소폭 늘려

국내 정유사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본인업 정유 부문에서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올해 원유 수요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감소하는 반면 공급이

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분기 SK이노베이션은 본인업 정유부문에 2261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6% 급감했고, 에쓰오일 역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정유부문에 186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작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R&D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소폭 늘리거나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까지 R&D 비용으로 1064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4억원이 줄었으나 매출액 대비 0.20% 전후 수준은 유지했다. GS칼텍스도 R&D 투자금액은 30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5억원이 줄었으나 매출액 대비 0.10% 수준은 유지했다. 에쓰오일은 매출액 대비 0.03% 수준이던 R&D 투자금액을 0.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지난해 69억원 수준이던 R&D 투자금액은 올해 3분기 80억원이 집

행됐다.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22억원 수준이던 R&D 투자금액이 16억원 늘어난 38억원을 사용했다. 에쓰오일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 0.01%포인트 R&D 투자금액을 늘렸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와 석유화학, 소재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특히, 차세대 바이오연료 상업화과정 설계를 위한 연구와 상용 청정 석탄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기존 사업에서의 품질 향상 외에 바이오매스 유래 나일론4 생산 기술 등 첨단기초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시대' 연다

자동차용·가감속 시스템 시연 성공... 2020년 상용화 목표

현대모비스가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오는 2020년 상용화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 보행자 인식, 전방차량 추월, 상황별 자동제동 및 가감속 기능 등의 구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우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해 오는 2020년까지 상용화 준비를 완료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차선이탈방지, 차선 유지보조, 긴급자동제동, 주차보조시스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술을 상용화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또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의 주행시험장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해외 자동차업체의 기술 개발 추이에 발맞춰 2020년까지 자율



현대모비스가 도로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주행 관련기술을 양산 단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특정 기능의 자동화 단계이며, 2단계는 기존의 지능형 기술들이 통합돼 기능하는 단계다.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을 인식해 자동으로 진행 방향을 조정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2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목적지 경로 상 일정 부분을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단계를 뜻한다. 4단계는 통합자율주행 단계로 처음 시동을 건 후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자공경부암 백신, 선택 아닌 필수”

일본발 부작용 논란에 접종 급감 효과 보려면 3회 접종 마무리해야

지난해 일본에서 자공경부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공경부암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발 부작용 논란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해외에서는 이미 의무적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 자공경부암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5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자공경부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도 이후, 지난해 4분기 관련 백신의 국내 접종은 전년 대비 약 43%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에 백신 접종이 오히려 14~18%

증가했고, 미국과 독일은 비슷하거나 근소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에 세계 보건 기구와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상 반응과 백신의 인과 관계를 조사해 해당 증상과 자공경부암 백신은 관계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상 없다는 발표를 했지만, 불안 심리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공경부암 백신 접종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접종을 시작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3회 접종을 완료해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회만 접종 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앞서 접종한 백신의 접종 비용은 날리게 되는 셈이다. 강인호 기자 kangih@

‘드러그스토어’ 승자없는 출혈경쟁 몸집 불리기에만 열올리는 속내는

유통 공룡들의 ‘드러그 스토어’ 전쟁에 홈플러스가 가세했다. CJ올리브영, GS왓슨스 등 업계 선두주자들조차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만 계속될 전망이다. 적자를 감내하면서 드러그 스토어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유통업계 적자에도 몸집 불리기 = 국내 드러그 스토어 시장은 지난 6년간 약 5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은 다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1년 69억46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일년 뒤인 2012년에는 8분의 1 수준인 8억2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9억93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1년 2119억1600만원에서 2012년 3075억6000만원, 2013년 4571억1800만원으로 매년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 셈이다.

업계 2위 GS왓슨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12년 21억2800만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는 99억2300만원으로 손실이 급증했다. 매출도 2012년 854억9400만원에서 지난해 910억5800만원으로 한 자릿수 증가(6.5%)에 그쳤다.

코오롱웰케어의 W스토어는 매년 적자 상태에서

CJ올리브영·GS왓슨스 등 선두업체 영업손실 상태에서도 외형성장 거듭

2008년 매출규모 1100억원 시장

6년새 7000억원으로 6배이상 성장

화장품·건강식품 등 경기영향 안받아

홈플러스 ‘H+B’ 물인쇄형태로 문열어

중소적합업종 지정여부도 업계 ‘촉각’

해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분스는 출범 1년 만에 신규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유통 대기업들은 드러그 스토어 사업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W스토어는 올해 9개점을 폐점했지만 39개점을 신규 오픈해 전체 점포수는 150개를 훌쩍 넘어섰다. GS왓슨스와 롯데쇼핑의 룽스는 올해 폐점 없이 점포수를 늘렸다.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들이 드러그 스토어 시장에 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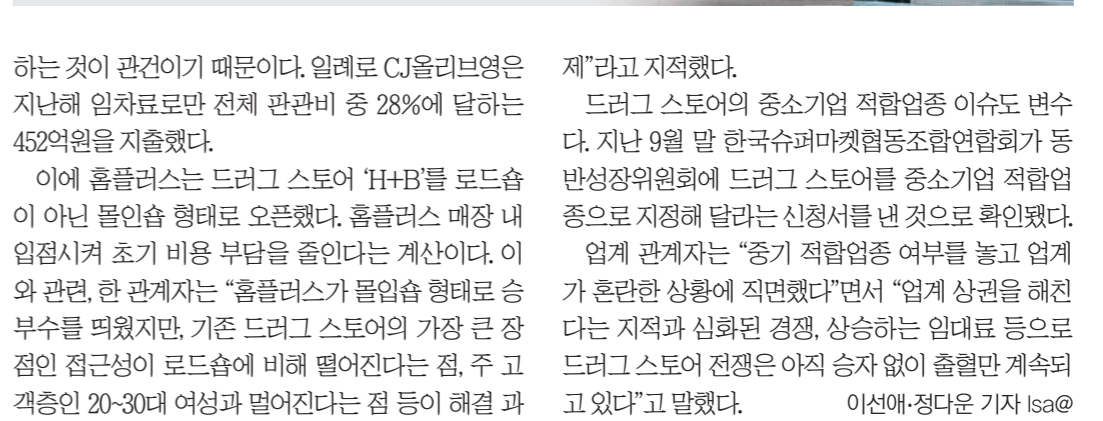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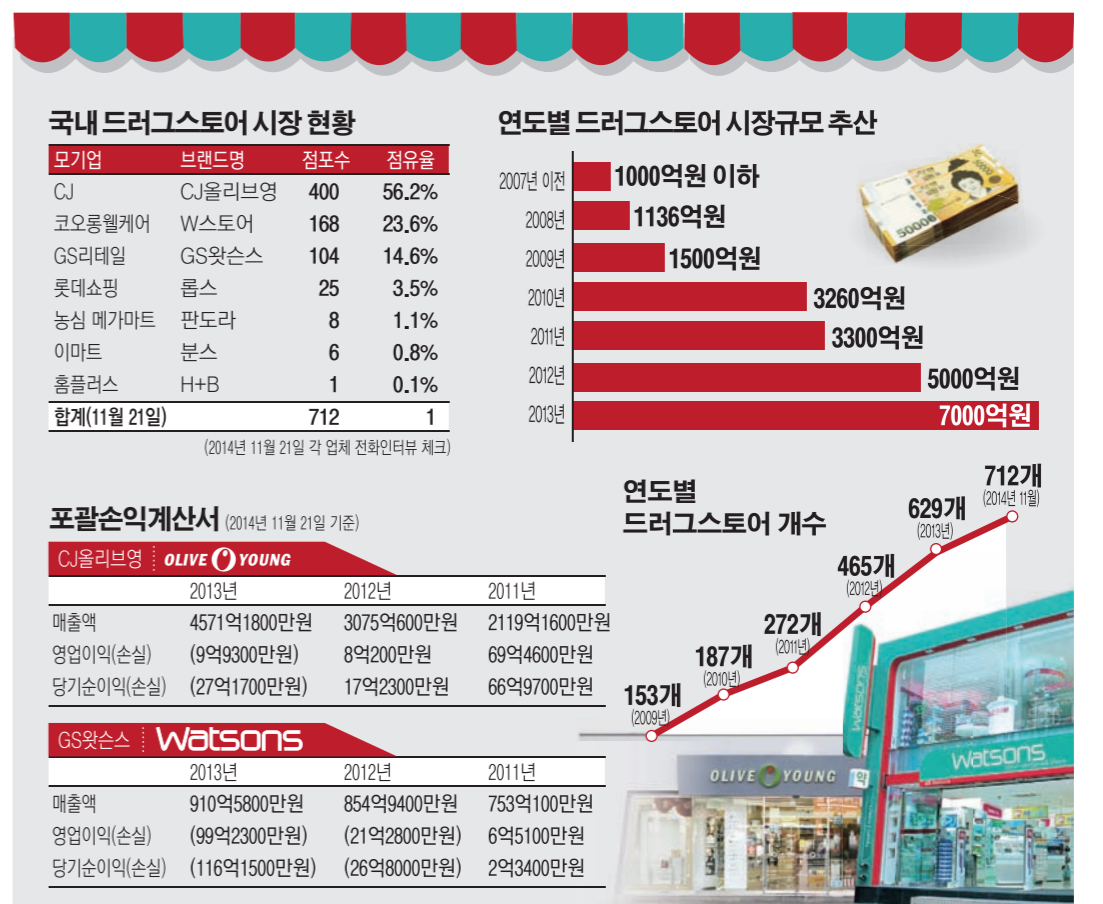
을 때는 이유는 높은 성장 가능성에 기인한다. 2008년 1100억원 매출 규모였던 시장은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하면 국내 시장은 초기단계라는 평가다.

국내 드러그 스토어의 주력 상품군인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과 각종 영업규제 및 온라인 정보기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형 유통 체인들이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드러그 스토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신규 가세... 물인쇄 형태로 승부 = 드러그 스토어 업계가 수익성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H+B’를 론칭한 홈플러스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장수가 150~200개는 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영업점 150개 이상인 브랜드는 CJ올리브영과 디블유스토어 뿐이다. CJ올리브영이 시장 진출에서 200호점을 돌파하기까지는 14년이나 걸렸다. 올해로 10년차인 GS왓슨스의 매장수도 104개에 머물고 있다.

높은 임대료 수준도 국내 드러그 스토어 시장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드러그 스토어의 특성상 역세권,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임차료로만 전체 판매비 중 28%에 달하는 452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드러그 스토어 ‘H+B’를 로드숍이 아닌 물인쇄 형태로 오픈했다. 홈플러스 매장 내 입점시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물인쇄 형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기존 드러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인 접근성이 로드숍에 비해 떨어진다. 점, 주 고객층인 20~30대 여성과 밀어진다. 점 등이 해결 과

제”라고 지적했다. 드러그 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도 변수다. 지난 9월 말 한국슈퍼마켓협회등조합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드러그 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여부를 놓고 업계가 혼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업계 상권을 해친다는 지적과 심화된 경쟁, 상승하는 임대료 등으로 드러그 스토어 전쟁은 아직 승자 없이 출혈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에·정다운 기자 isa@

가보니 백화점 을 마지막 정기세일

모피 행사장 ‘썰렁’...저가 특판장만 ‘복적’

첫 주말 매출 신장률 일제히 하락

“어휴... 너무해. 어떻게 5만~6만원짜리 패딩만 팔리고, 손님들이 다른 건 쳐다도 안봐.” 지난 일요일인 23일, 백화점의 한 직원이 혼잣말로 불멘소리를 내뱉었다. 이날은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마지막 정기세일에 돌입한 첫 주말이었으나,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고객들의 발길은 뜸했다.

이날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행사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모피특가 행사장은 40~70% 세일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성 고객들은 곳곳에 걸린 세일 문구에 관심을 보였지만, 옷 한 번 걸쳐 보지 않고 가격표를 보고 손을 놓거나 둘러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2만~5만원대의 장갑, 머플러 등 잡화 행사장과 여성화 4만9000원, 남성화 5만9000원 등 예

스카이어 특가전 행사장에는 손님들이 복적거렸다. 또 다른 행사장 스포츠 대전에서도 1만~3만원대의 스포츠 티셔츠를 파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비슷한 풍경을 만들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8)씨는 “백화점 정기세일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확실히 예전보다 사람이 확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백화점업계는 겨울 정기세일을 시작한 21~23일까지 3일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매출 신장률은 전년 겨울 정기세일과 비교해 일제히 하락했다. 신세계백화점이 2.0%포인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롯데백화점은 3.3%포인트, 현대백화점은 3%포인트가량 신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아직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겨울 정기세일 주력상품인 아웃도어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23일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행사장에서 모피특가전이 열리고 있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돌아온 어묵의 계절’ 프리미엄 간식 변신

풀무원·CJ·사조 1400억 시장 한판승부

졸깃한 어묵 한덩이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위경남 김민수(38)씨도 퇴근 때면 아이들을 위해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을 간식으로 사다 먹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맘에 걸려 마트에서 ‘간식용 어묵’을 직접 사서 요리해왔다. 집에서 흔히 먹던 길거리 어묵을 고급간식과 요리용으로 대체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풀무원이나 CJ제일제당, 사조대립 등의 식품업체들이 생선살을 주원료로 프리미엄 어묵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국내 어묵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400억원, 올해는 약 2700억원으로 시

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프리미엄 어묵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풀무원은 최근 데우지 않고 생으로 먹는 어묵인 ‘알래스칸특급’ 12종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어묵시장에 진출했다. 바로먹는 간식겸용으로, 알래스카 자연산 A등급 이상의 명태 연육만을 사용하고 여러 함성첨가물과 밀가루를 첨가하지 않았다. 최근 강남, 분당, 목동 등 주요 백화점에서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고 일 평균 1000개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한편, 국내 어묵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CJ와 사조대립도 간식용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튀기지 않고 찌고 구운 ‘더(THE)건강한 어묵’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핫바 형태의 간식 어묵인 ‘가마보꼬’와 스테이크형 어묵 ‘사조마아게’도 출시했다.

사조대립 역시 지난 8월 프리미엄 어묵 ‘셰프덴(Chefden)’을 새롭게 론칭했다. 조리법을 간편화해 간식이나 술안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구마, 떡, 햄 등을 어묵과 함께 말거나 어묵 속에 채운 독특한 모양이 특징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35th Anniversary
한국석유공사

‘가능성의 날개’를 달다

동해-1 가스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된 대한민국

전국 9개 비축기지에 확보된
1억 4천 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알기에
1%의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 100%의 성과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한국석유공사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KNOG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주목! 이곳 **대림산업 | e편한세상 캐널시티**

건본주택 앞 장사진...입장대기만 30분

김포 한강에 주상복합단지 전용 84㎡ 중소형 639가구 분양가 3.3㎡당 980만원대 확장비도 포함 합리적 가격 수변문화 상업시설로 '눈길'

김포 한강신도시에 저렴한 분양가와 탁월한 입지성을 갖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지난 주말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캐널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모델하우스 입장에만 20-30분의 시간이 걸렸고, 내부 유닛을 보기 위해서는 또 10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한 인천시민은 "여러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녀 봤지만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e편한세상 캐널시티의 장점으로는 남다른 설계와 수변 문화상업 공간 조성, 분양가, 입지를 꼽을 수 있다.

전체 639가구가 동일하게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타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규모다.

단일면적으로 구성됐지만 총 6개 타입의 평면을 선보여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타입별로는 △84㎡A 94가구 △84㎡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캐널시티' 모델하우스를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B 359가구 △84㎡C 139가구 △84㎡D 23가구 △84㎡E 21가구 △84㎡F 3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대부분의 가구를 채광과 환기가 좋고 개방감이 우수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또 다른 장점은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춘 입지성이다.

2010년 김포 한강로 개통 이후 2018년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불편한 교통 환경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편한세상 캐널시티는 2018년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과 걸어서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외에도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가 가까이 있어 인근의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서울

역, 강남으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분양가 역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확장비를 포함해 3.3㎡당 평균 98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는 확장비를 포함하지 않고 평균 975만원 선이지만 일반적으로 확장비가 1000만~2000만원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이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단지 주변으로 조성될 수변문화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역시 e편한세상 캐널시티의 장점 중 하나다. 게다가 최근 롯데마트가 단지 내 입점을 확정하는 등 생활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의 약점으로 꼽혔던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은 인근 주민은 "단지가 평지에 지어졌고 특히 수변경관이 잘돼 있어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캐널시티 분양 관계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입지가 좋으면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한 달 안으로 계약도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2순위, 12월 1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일이며 계약은 12월 10~12일이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대형건설사 직원 급여 얼마나? 삼성물산 6800만원

시평 1위...급여도 가장 높아 포스코건설·현대건설 뒤이어



9년 만에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이 10대 건설사 가운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각 건설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건설·상사 부문 합산)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6800만원으로 이 중 상사를 제외한 건설부문은 남성직원 7200만원, 여성은 5100만원이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4542억원, 당기순이익 3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7%, 28.4% 늘었다.

다음으로 사상처음 시평순위 3위에 오른 포스코건설이 평균 연봉 2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61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건설사 중 유일하게 6000만원대를 넘어섰다. 포스코건설의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은 2560억원, 당기순이익은 36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또한 업계 말봉 현대건설은 평균 연봉 5800만원으로 포스코건설의 뒤를 이었다. 전력부문의 평균 연봉은 6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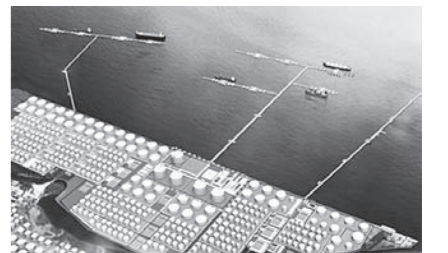
만원에 달한 반면 토목과 플랜트분야는 5700만원으로 세부별 격차가 1000만원에 달했다. 현대건설의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69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

GS건설도 현대건설과 같은 5800만원에 지급했고 이 회사 역시 인프라 부문이 6500만원을 기록한 반면 플랜트 부문은 5600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시평 4위인 대림산업의 직원 평균 급여액은 57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건설사 가운데 5번째에 자리했고 합병과 함께 시평 10위에 오른 현대엔지니어링은 5400만원으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직원 1인당 평균 53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롯데건설과 두산건설은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삼성물산, 말레이시아 LNG 터미널 수주

저장탱크 설계 등 4900억 규모



말레이시아 LNG 터미널 조감도.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LNG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25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가스(PETRONAS Gas Berhad)가 발주한 LNG 터미널 건설공사의 최종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공사금액은 저장탱크 설계를 포함해 4억8600만 달러(5175억원)이며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건설사인 ST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삼성물산은 설계를 포함해 4억5900만 달러(4900억원)를 계약했으며 공사는 2018년 4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전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조호르 주(州) 펜가랑(Pengerang)지역에 20만㎡ 규모의 LNG

터미널 2기와 연간 5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 기화송출설비를 짓는 공사로 페트로나스 가스는 완공 후 인근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및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해 3월 삼성물산이 인수한 영국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재기화(regasification) 시설 설계 전문업체인 웨소(Whesoo)가 LNG 저장탱크 설계를 맡아 사업 초기부터 설계와 시공에서 삼성물산과 본격적 협업을 수행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SH, 세곡2지구 55가구 분양 경남기업, 1121억 규모 세종시 LH아파트 공사

서울시 SH공사가 25일 세곡2지구 8단지 55가구를 분양한다.

SH공사는 이날 분양공고 후 다음달 1일 특별분양, 17~18일 일반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8단지는 SH공사가 강남지역에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전용면적은 101㎡, 114㎡ 등 2가지다.

면적별 평균 분양가는 101㎡ 아파트 7억 2531만1000원, 114㎡ 7억8738만원이다.

분양 물량은 서울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 시민에게 각각 50%씩 배분된다.

박태진 기자 tipippo@

3·3생활권 M6블록 1522가구

경남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6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총 도급금액은 1323억원 규모로 경남기업이 90%의 지분을 갖고 서대중합건설(1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소방공사를 제외한 경남기업의 도급금액은 1121억원 규모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 조감도.

11.14%에 해당한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아파트 1522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하 2층, 지상 10~29

층, 19개동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올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단일공사 물량 중 최고 낙찰금액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충청권의 초대형 물량인 만큼 입찰 참여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함께 산에 올라 수주기원을 울리고 결의를 다진 이후의 성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고 기준 올해 잔여 건축 공사발주물량은 31건, 2조6000억원 규모로 막바지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원 기자 carlove@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중근당 '튼튼관절'

단풍놀이 갔다 뼈격대는 관절에 '기름칠'

중근당그룹은 계열사인 중근당건강이 최근 관절의 기능 개선과 통증 완화 및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튼튼관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근당건강의 튼튼관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과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D'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관절 건강관리 제품이다. 중근당건강에 따르면 국내 대학병원에서 48세 이상 피험자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시험한 결과, 관절 통증과 불편함을 평가하는 위막점수(WOMAC score) 중 18개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은 가시오갈피·당귀·황금에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효성분만을 추출해 만든 천연 신소재로 통증완화 및 기능 개선과 염증·부종에도 효과적이다. 또 식품으로 권장량 섭취가 어려운 비타민D를 함유, 체내의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 해조칼슘·생선콜라겐·보스웰리아·식이유황·상어연골·초록잎홍합분말 등 관절과 연골에 좋은 보조 성분들이 복합 처방돼 관절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중근당건강 관계자는 "최근 등산 및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면 감기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질환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만큼 미리 건강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약사들은 감기약부터 종합비타민제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각 제약사가 내놓은 환절기 건강관리 약품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 보자.

일양약품 '비타민D 1080 IU'

해 짧아지는 요즘 '비타민D' 섭취에 필수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D 1080 IU'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이 회사가 출시한 비타민D 1080 IU는 스위스산 고품질 프리미엄 비타민D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최근 구입 문의가 늘어나고,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양 비타민D 1080 IU는 비타민D를 보강하기 위한 제품이다. 특히 비타민D는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뼈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에 필수다. 예방을 위해 식습관 개선이 중요한 골다공증은 칼슘 섭취가 필수이며, 장내 칼슘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 배출을 감소시켜 주는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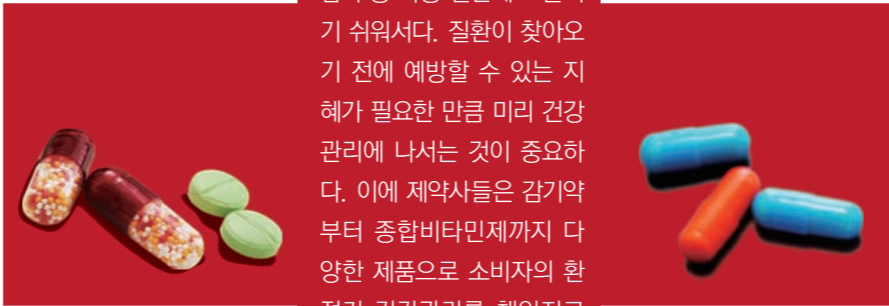
비타민D는 햇빛 노출 시 체내에 생성되는 비타민으로, 최근 자외선차단제 사용으로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 사이에서 결핍이 많아 흔히 '선사인비타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별 비타민D 결핍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일양 비타민D 1080 IU는 1일 1캡슐로 1080 IU가 함유된 고품질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다. 이는 1일 영양섭취 기준 대비 540%(27ug/1080IU)를 충족시키는 함량이다. 또한 엄격한 품질기준을 거친 스위스 DSM사의 'Quali-D' 인증 마크를 획득한 비타민D만을 사용했고, 상큼한 레몬맛의 씹어먹는 연질캡슐로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환절기 건강관리



방심하단 '골골~'

동아제약 '판피린 큐'

발열·콧물·기침·가래... 감기기운에 빠른효과

환절기에 큰 일교차와 건조한 환경으로 콧물, 기침, 가래 증상을 동반하는 감기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 환절기엔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이중 약 60%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어서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책, 약이 차선책이다. 이에 동아제약은 종합감기약 '판피린 큐(Q)'를 추천하고 있다.

제품명 '판피린(panpyrin)'의 어원은 통증(pain)의 pan, 열(pyrexia)의 pyr에 어미 in이 조합된 말로 통증과 열에 탁월한 감기약이라는 의미다. '큐(Q)'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는 'Quick'의 의미를 강조한다.

판피린 큐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i-메틸에페드린염산염, 카페인무수물, 구아이페네신, 구연산티페피딘으로 구성됐다. 6가지 복합성분을 함유해 콧물, 코막힘, 기침은 물론 발열, 두통 등 특히 초기 감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 가능하며, 1회 복용량은 20ml(1병)로 용량이 적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약효 발현이 빠르며 위장관계 부작용도 적다. 5병 팩(pack)으로 된 포장지 겉면에 감기몸살·두통 효과와 효과를 재미있는 캐릭터로 표현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겨울보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증가한다"며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감기 증상이 온다고 느꼈을 때 고민하지 말고 판피린 큐를 복용한다면 더욱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유한양행 '비콕씨'

비타민B·C·E 함유 확실하게 피로회복

유한양행의 비타민 영양제 '비콕씨'가 일교차가 큰 환절기 온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 비타민 브랜드 비콕씨는 올해로 출시 51년을 맞는 장수의약품이다. 비콕씨는 피로나 영양불균형으로 지쳐 있을 때 효과적인 비타민 B·C 복합제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지방·단백질·무기질의 대사에 관여하며, 산소와 에너지를 함유하는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 C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능으로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비콕씨는 피로·영양불균형·병중병후·임신수유기 등의 비타민 보급 및 신경통·관절통·구내염 등의 질병 완화에 효과가 있고, 비타민 C가 600mg이나 함유돼 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매년 1위에 꼽힐 만큼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지난 2012년 비타민 B군과 C로 구성된 제품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을 보강해 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콕씨 리뉴얼 제품도 선보였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항산화 제품에 관심이 높은 고령층의 요구에 부응,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와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올려주는 셀레늄을 보강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Hanmi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 매출 15% 신약 R&D투자 • 글로벌 개량신약 국내 최초 개발 • 신약 후보 12건 글로벌 임상 시험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융커, 29조원 마중물로 '민간투자' 물꼬

〈유럽연합집행위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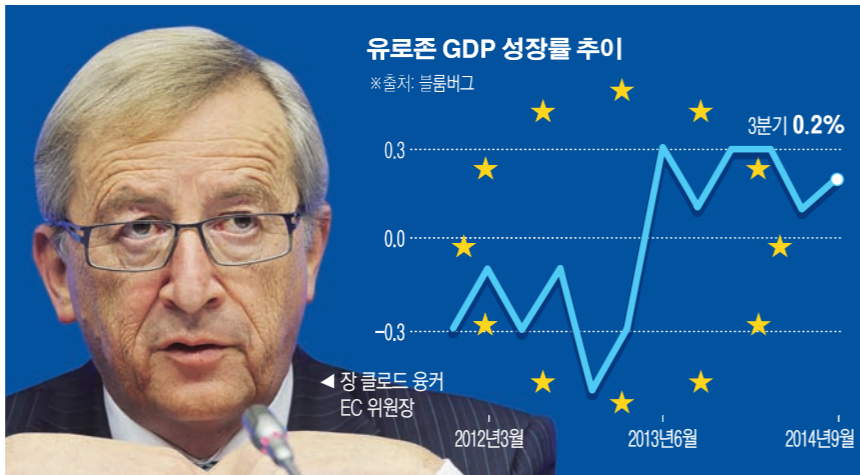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이 디스플레이선 수령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을 구원하기 위해 조장돈을 꺼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오는 26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10억 유로(약 2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마중물 격으로 210억 유로를 투입해 민간 부문 투자를 총 3150억 유로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으로 임시 명명된 이 조장돈 프로젝트는 이달 초 EC 수장에 오른 융커 위원장이 처음 주도하는 대형 사업이다. 앞서 융커는 집행위 위원장 취임 당시 "민간투자를 촉진해 인프라를 확충, 신규 일자리의 85%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소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능한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EFSI가 투자하는 대상과 할당 지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최소 공적자금 투입...최대 15배 창출 기대 경기 부양하기엔 규모 작아 실효성 의문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유럽투자은행(EIB)이 경계할 정도로 고위험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EFSI는 EU의 기존 예산에서 160억 유로를, EIB에서 50억 유로를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융커 위원장의 야심작이 아직

공개되기도 전 유럽의회는 물론 유럽 내 취약국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0억 유로를 통해 15배에 가까운 전체 투자금을 민간 쪽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적은 돈으로 너무 큰 경기부양 효과를 노

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EU 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더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EFSI 프로젝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EFSI의 규모가 600억~800억 유로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8개의 EU 회원국이 전원이 이달 25일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EC 고위관계자는 "EFSI가 현재 논의 상태에 남아있다"고 말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EU 내 융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유럽의회는 융커 위원장의 불신임 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8년간 룩셈부르크 총리로 재직하던 융커는 현재 다국적 기업들에 불법적 감세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업 전망 어둡다” 신흥시장 부진에 글로벌車 판매 ‘제동’ 5년새 신뢰도 최저 올해 신차 2% 증가 그쳐... 5년만에 최저 수준

금리인상·지정학적 위기 우려

글로벌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에도 기업 신뢰도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보서비스기관 마르킷가 최근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기업 신뢰도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르킷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망 서베이(MGBOS)'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 활황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위축할 것이라는 답변에 비해 28%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지난 여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39%에서 매우 줄어든 것이다. 마르킷은 제조업 낙관론이 지난 2013년 중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서비스업의 신뢰도는 5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두운 그림이 여전하다”며 “글로벌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고용 계획도 위축됐고, 투자 의향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영국 영란은행(BOE)의 금리인상 우려에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윌리엄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불안이 5년 만에 최대치로 커졌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중국과 브라질 등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던 신흥시장이 경기불안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글로벌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약 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4%에서 반토막 나는 것이며 리먼 쇼크로 판매가 많이 줄어든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라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은 경기둔화에 따라 자동차 판매도 8월 이후 기세를 잃었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5% 안팎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4위 시장인 브라질은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은행들이 자동차

대출을 제한한 가운데 금리가 오른 것도 브라질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다.

6위 시장인 인도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전년보다 7%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치불안도 신흥국 자동차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권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1-10월 판매가 전년보다 13%, 시위와 군사쿠데타 등으로 중국이 불안정했던 태국은 1-9월 판매가 37% 각각 감소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해 6.1%로 10년래 가장 큰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헤이글 미국방장관 사실상 경질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포옹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행정부 각료 중 유일한 공화당 출신인 헤이글 국방장관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책 등을 놓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 저고도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중국이 저고도 비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간항공산업 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 항공교통관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내년에 운용과 정기노선 운항을 제외한 일반 항공기의 1000m 이하 저고도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내년에 마련될 초안은 현재 광저우와 선양 등 12개 도시에서

실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승인 과정에서 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헬리콥터에서 민간제트기에 이르는 일 반 항공기는 주로 1000m 이하의 저고도를 비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군이 영공을 엄격하게 관리해 민간항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중국 항공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 226개의 일반항공기업체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항공기는 총 1786대에 이른다. CAAC의 왕즈칭 부국장은 “6년 뒤에는 5000대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셀카봉·애플워치 ‘올해의 발명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4년 최고의 발명품 25선에 셀카봉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타임 인터넷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셀카봉의 팔이 미치지 않는 길이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스스로 촬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셀카’라는 단어가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셀카에 이어 애플이 지난 9월 공개한 스

마트 손목시계인 애플워치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다. 애플워치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끌어 내려고 했던 기존 스마트워치와는 달리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손목 위에 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3D 프린터도 발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계”는 공상과학과 같은 소리지만 3D프린터 덕분에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태블릿 PC ‘서피스 프로3’, 도감청 위험이 없는 스마트폰 ‘블랙폰’ 등 IT기기가 발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블랙 프라이데이 D-3, ‘삼성 vs 애플’

“100만원짜리 갤럭시S5 단돈 10원에 드립니다”

허핑턴포스트 할인제품 소개 7인치 갤럭시탭4는 16만원에

미국 최대 쇼핑기간 ‘블랙 프라이데이’에 쏟아질 할인 제품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가격비교 사이트 ‘딜뉴스’가 게시한 품목을 바탕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인 적용된 16개의 전자제품을 소개했다.

품목 가운데 삼성전자, 애플의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삼성전자 제품을 살펴보면, 종합유통업체 타겟(Target)은 올해 출시된 갤럭시 S5(16GB)를 단돈 1센트(약 110원)에 판매한다. 2년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100만원에 육박했던 기존 판매가를 고려하면 할인폭이 과격적이다.

삼성 갤럭시 탭4(7인치)는 가전·생활용품 판매업체 K마트에서 150달러(약 16만70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20달러 상당의 포인트까지 ‘탑’으로 준다.

삼성전자 스마트 UHD TV(55인치)는 전자제품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에서 899.99달러(약 100만2000원)에 판매한다. 국내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싼값이다.

애플 제품의 할인폭도 크다. 아이폰 6(1GB)는 현지 대형 유통매장인 샘스클럽(Sam's Club)에서 99달러(약 11만2300원)에 판매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5.

블룸버그

허핑턴포스트는 “아이폰6가 179달러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2014년형 맥북에어” 13인치 제품도 국내에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낮은 799.99달러(약 86만8500원)에 판매된다.

베스트바이(Best Buy)에서 이 가격을 책정했다. 아이폰6에어(16GB)는 타겟에서 499달러(약 55만56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140달러 상당의 금액이 충전돼 있는 기프트 카드도 제공한다.

이밖에 파나소닉 HDTV(50인치)는 베스트바이에서 199.99달러에, 아수스 인텔 랩톱은 스테플즈(Staples)에서 단돈 100달러(약 11만1350원)에 각각 판매한다.

한편,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전 품목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백화점 JC페니로, 최대 65.44%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28일부터 이틀동안 실시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이폰6’ 플러스 완판예감 4분기 최대 6500만대 생산

“최대 수혜기업 될 전망”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애플이 미국 유통업체의 대목인 연말 홀리데이시즌의 주요 수혜기업이 될 전망이다.

월가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하는 연말 쇼핑 시즌에 애플의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플러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 카소 서스퀘어나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목표주가를 기존 120달러에서 135달러로 상향했다.

카소 애널리스트는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플러스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면서, 앞으로 수분기 동안 애플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소는 애플이 4분기에 6000만~6500만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것이



아이폰6플러스.

블룸버그

달러로 끌어 올리기도 했다. 지난 10월 공개한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2와 PC 아이맥은 물론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 역시 올해 애플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화이트 애널리스트는 “이번 홀리데이시즌에 애플을 둘러싼 별이 빛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에 대한 투자등급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애플 쇼핑 이벤트를 열고 특별 할인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해 기존 현금 할인이 아닌 애플스토어에서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전략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한 평균 할인율은 15%였다. 이는 전년 대비에 비해 할인폭이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아이폰6플러스의 생산 비중은 애플의 전체 수익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화이트 캔터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 역시 올해 홀리데이시즌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5100만대의 아이폰을 팔아치우며, 매출을 576억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중, 저고도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중국이 저고도 비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간항공산업 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 항공교통관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내년에 운용과 정기노선 운항을 제외한 일반 항공기의 1000m 이하 저고도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내년에 마련될 초안은 현재 광저우와 선양 등 12개 도시에서

셀카봉·애플워치 ‘올해의 발명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4년 최고의 발명품 25선에 셀카봉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타임 인터넷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셀카봉의 팔이 미치지 않는 길이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스스로 촬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셀카’라는 단어가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셀카에 이어 애플이 지난 9월 공개한 스

마트 손목시계인 애플워치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다. 애플워치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끌어 내려고 했던 기존 스마트워치와는 달리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손목 위에 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3D 프린터도 발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계”는 공상과학과 같은 소리지만 3D프린터 덕분에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태블릿 PC ‘서피스 프로3’, 도감청 위험이 없는 스마트폰 ‘블랙폰’ 등 IT기기가 발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노진환 기자 mytixer@·신태현 기자 holjjak@

극장가에 '패기'와 '관록'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라이징 스타로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배우 김우빈과 '도둑들' '관상' 등으로 흥행성을 입증한 배우 이정재가 연 말 한국영화 흥행 열풍을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해 영화 '친구2'로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김우빈은 1년 만에 영화 '기술자들'로 돌아왔다. '기술자들'은 인천세관에 숨겨진 검은돈 1500억원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탈기 위해 모인 기술자들의 비즈니스를 그린 케이퍼 영화다.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과 영화 '친구2'로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든 김우빈은 '기술자들'에서 어떤 급고든 열어내는 업계의 마스터 키 지휘 역할을 맡았다. 이에 김우빈은 "몸, 머리 둘 다 사용해야 했다. 한 가지만 하면 좋는데 두 가지 다 하러니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며 "현장에서 감독이 워낙 지휘를 잘해 줬다. 고장석, 이현우가 있어서 힘을 얻으며 촬영했다"고 밝혔다. 김우빈은 특히 '친구2'에 이어 '기술자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워낙 시나리오가 재미있었다. 워낙 때부터 좋았다. 무엇보다 고장석, 김영철, 임주환, 조윤희 등 든든한 선배들이 있어서 믿고 따라가며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들'의 김홍선 감독은 "기술자들은 그 어떤 케이퍼 무비보다 강렬한 내러티브, 스피디한 전개, 차별화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다. 빠른 속도감과 지루하지 않은 볼거리들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작 '신세계'에서 범죄조직에 잠입한 신입경찰 이자성 역으로 강렬한 눈빛 연기와 탁월한 심리 연기를 선보였던 이정재는 영화 '빅매치'에서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며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펼쳤다. 이정재는 "액

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 검은돈 1500억 40분 내 탈기

이 "작품 위해 열정 불살랐다" 서울 도심 누비며 화려한 액션

션 찍을 때는 항상 긴장한다. 사고가 가장 걱정된다. 배우와 스태프 모두 전사고가 많았다. 카메라 들고 뛰어가고 넘어지고 다치고, 연기자도 마찬가지였다"며 촬영 현장의 긴박함을 전했다. 이어 "기획, 시나리오 모두 재미있었다. 한국영화에서 보기 힘든 오락성 강한 영화"라고 출연 이유를 밝힌 이정재는 "영화 출연을 결정하고 몸무게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77kg까지 운동하면서 늘렸다. 원래 70-71kg이었다. 조금 더 늘리고 싶었는데 액션신의 강도가 높아 도저히 안 되더라"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정재는 또 "나에게 '빅매치'는 뜨거운 열정이다"며 "액션이 많아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다. 아시다시피 내가 아주 젊지는 않기 때문이다. 뛰는 게 힘들었다. 모든 것이 나에게겐 숙제였다. 열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빅매치' 박정률 무술감독은 "이정재는 무술, 기초체력뿐만 아니라 근육 트레이닝을 따로 받을 정도로 열정이 많았고 항상 파스 냄새가 진동할 만큼 열심히 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액션배우로서의 소질이 다분해 놀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인터스텔라' 열풍

지난 주말까지 누적관객 685만
흥행수익 548억美·中 이어 세번째
"아바타"보다 빨라" 1000만 가시권

극장가 영화 '인터스텔라'에 폭 빠졌다. '인터스텔라'는 10-11월 전형적인 비수기 시즌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23일 기준 누적 관객 수 685만명을 동원하며 7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봉한 지 18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48만명의 관객이 입장하고 있다. 영화계는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외화 흥행 순위 1위에 올라있는 '아바타' (2009)의 흥행 추이보다 빠르다며 1000만 영화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실제 '인터스텔라'는 '아바타' '겨울왕국' 등 1000만 영화의 600만 관객 돌파보다 빠른 관객 동원력을 보이고 있다.

흥행 수익도 벌써 500억원을 넘었다. '인터스텔라'는 23일 기준 548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억2069만 달러(약 1340억원)를 벌어들인 미국과 8230만 달러(약 914억)의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기록

으로 '인터스텔라'에 대한 국내 영화 시장의 집중도를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맥스와 4D 등 특수관 상영으로 인한 부가 수익이 한몫했다. CJ CGV에 따르면 '인터스텔라'의 IMAX 버전은 개봉 주말 88%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스텔라'는 이제까지 나온 할리우드 장편영화 중 가장 긴 시간을 IMAX 카메라로 촬영해 섬세하고 화려한 영상을 자랑한다. 풍부한 사운드 효과로 중력과 무중력의 상태, 비행선의 뒹굴 통과 등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인터스텔라'는 680만 고지를 넘어서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국내 최고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한국 최고 흥행작은 639명의 '다크나이트 라이즈'였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인터스텔라'의 흥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개봉 3주차에도 평일 20만명, 주말 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일별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헝거게임: 모킹데이' '퓨리' 등 할리우드 신작들의 공세에도 실시간 예매율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재 주연의 '빅매치'가 26일 전야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예매율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12월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스퍼트: 신들과 왕들'까지 '인터스텔라' 독주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sun@



왼쪽부터 알리, 문명진, 신용재, 에일리, 효린.

스타의 산실 '불후의 명곡'

'1호 스타' 알리·'10년만의 무대' 문명진...
권재영 PD "엄격한 기준 갖고 오디션"

알리·문명진·에일리·효린·신용재·손승연... 긴 무명생활로 빛을 발하지 못해 움츠러 있던 가수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듯한 폭발적 가창력과 개성 있는 보이스로 자신이 가진 실력과 매력을 마음껏 뽐낸다. 그리고 청중평가단에 냉혹한 평가를 기다린다. KBS 2TV '불후의 명곡'을 통해 뜨지 못했던 가수들이 실력을 자랑하며 스타덤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토요일 저녁마다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강력한 스타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불후의 명곡'이 낳은 1호 스타는 알리다. 알리는 '불후의 명곡 안방마님'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최다 출연 횟수를 기록하며 폭발적 가창력과 풍부한 음악적 감성이 담긴 과격적 무대로 관객을 홀려시켰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송골매의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해

은이의 기립박수를 받은 '새벽비', 절제된 애절한 감성으로 호평받은 이광조의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선희의 'J에게' 등 전설들의 노래를 자기만의 감성으로 재탄생시키며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내 음악성 있는 보컬리스트로 인정받았다. 알리의 가수 인생은 '불후의 명곡' 출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의미를 프로그램이 띤다.

또 한 명의 숨은 보석은 문명진이다. 문명진은 지난해 4월 '중고 신인의 충격적 등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약 10년 만에 무대에 섰다. 호소력 짙은 보이스에 폭발적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출연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그는 드라마 '상속자들' '유혹' 등 OST 등에 참여하는 가 하면 13년 만의 싱글 앨범 '잘 들어'를 발매했다.

이 밖에 퍼포먼스형 가수로서, 아이돌의 편견을 무참히 깨뜨린 실력과 씨스타 효린, 우월

한 실력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포맨의 신용재, 약 9년간 그룹 부활의 보컬로 활동하다 최근 홀로 서기를 한 정동하, 작은 체구에도 풍부한 감성과 청아한 음색으로 신선한 매력을 드러낸 작은 거인 벤, 보이스코리아 출신으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과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은 파워 보컬리스트 손승연, 국내 대표 재즈 디바 웅산 등 숨은 스타가 배출됐다.

권재영 PD는 "새로운 얼굴을 찾아 신선하고 새로움을 선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이고 힘"이라며 "그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 엄격한 규칙하에 가수들 오디션을 자주 본다. 에일리와 손승연이 오디션을 통해 출연한 가수"라며 "우리 프로그램의 색깔에 어울리는 가수들이다. 그들이 잘돼 나 역시 매우 뿌듯하고 좋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력있는 내 삶!

백년 백세효모

- 1. 천연원료 100% 비타민B1과 맥주효모를 부원료로 담았습니다.
- 2. 활력을 원하는 중장년층, 현대인에게 영양보충을 해줍니다.
- 3.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 4. 노약자나 성장기 어린이까지 드실 수 있는 효모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할 때 백세효모와 함께 하세요.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CEO 칼럼 김성동 카페피아모 대표이사

난립하는 '데이 마케팅'

지난 11일은 페페로데이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중 3년간 평균 매출 신장률이 평균보다 84배 이상 높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 지난해 롯데제과의 페페로 매출만 총 800억원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는 밸런타인 초콜릿 매출(919.1%)의 약 4배, 화이트데이의 사탕 매출(720%)의 11.5배나 되는 수치다. 올해 페페로데이에도 1주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매출이 그 전주보다 830%(약 83배) 상승했다.



데이마케팅은 특정한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의 하나다. 기념일을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약화에 따른 소비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마케팅은 신상품 출시, 할인 판매, 경품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최근의 데이마케팅은 지나친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소비를 촉진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너무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사실 데이마케팅의 역사를 살펴보면 송고한 정신에서 시작됐다. 3세기 경 당시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 법으로 젊은이의 결혼을 금지했다.

그러나 밸런타인이라는 사제가 이를 어기고 젊은이들을 몰래 결혼시키다 들롱이 나 소군을 하게 됐다. 이날이 바로 269년 2월 14일이다. 498년에는 기독교회 측이 정식으로 2월 14일을 성 밸런타인의 날로 선포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삼았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밸런타인데이가 지켜지다가 18세기 말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쇄된 카드가 보급되면서 밸런타인데이 축하카드가 보편화됐다.

밸런타인데이를 상술에 이용한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1958년 일본의 유명 제과회사 모리나가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쉽게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하루만이라도 여자가 남자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자"는 사랑 고백 캠페인을 전개했다. 물론 매개체는 사랑의 달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초콜릿이었다. 1970년대 들어 밸런타인데이가 인기를 끌자 모리나가제과는 "2월 14일 초콜릿으로 받은 사랑을 3월 14일 보답하자"는 화이트데이를 내세웠다.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데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3월 3일은 '삼겹살데이'로 삼겹살을 먹는 날이며, 3월 7일은 '삼치데이'로 삼치를 먹는 날이다. 이 밖에 5월 2일은 오이데이, 7월 2일은 체리데이, 9월 2일은 구이데이 등이 있다. 모두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이마케팅이다.

이들 데이마케팅이 모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소비 유도나 상술에만 치중해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데이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점포의 아이템이 가진 속성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입소문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마케팅에 얽매어 고객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상술에만 의존하는 상업적 데이마케팅보다는 고객과 브랜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고유한 데이를 만들어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떨까.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대강 비리에 원전 비리, 그리고 철도 비리에 방위산업 비리, 공공부문이 온통 비리와 부패 전지인 것 같다. 원전과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까지 파괴되고 있다.

경제력 규모로 10위권대 초반에 있는 나라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77개국 중 46위, 긴 한숨이 나온다.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팅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도 우리를 아시아 17개국 중 10위,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약으로 평가한다. 지난 10여 년간 1만80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우리 돈으로 평균 100억원 이상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중국이 우리 바로 다음인 11위다. 중국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구의 논평이다. "한국에서는 부패의 뿌리가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에까지 뻗어 있다... 사람들은 부패에 둔감하며, 글로벌 사회로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고개가 숙여진다. 어

공직비리,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

짜다가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큰일이다. 시간이 가면서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일례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79명이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2012년 1836명으로, 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2103명으로 늘어났다. 각각 270%와 310% 증가한 셈이다.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왜 이럴까? 길게 이야기할 것 없다. 크게 두 가지 문제다. 먼저 그 하나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견제되지 않는 힘이다. 국가가 성장과 배분을 주도해 온 결과 이들의 힘과 규모는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수준은 낮다. 국방 비리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는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는 등 그 한계가 뚜렷하고, 외부통제는 그 주축인 국회와 지방의회부터 엉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의 낮은 자정(自淨), 즉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낮다는 점이다. 사실 시장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럽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 급하거나 계산상 이익이 되면 비리는 부정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정능력도 키운다. 예컨대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명한 회계로 투자자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또 물건을 오래 팔려면 소비자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부정부패 등 이미지를 해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일수록 비리와 부

패가 적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자정능력이 경제규모에 맞게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시장이 워낙 빠르게, 그것도 관치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은 스스로의 탐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포획하고 있다.

강하고 클 뿐만 아니라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 그리고 자정능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그 힘을 키워가는 시장, 바로 이 둘의 결합이 '탐욕스러운 시장'에 의한 강하고 큰 국가의 포획, 즉 비리와 부패로 나타난다. 공직자의 수위 등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은 약과다. 시장에서의 큰 힘은 오히려 국회와 행정부 전체를 포획하며 각종 특혜와 특권을 제도와 관행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국가도 바로잡고 시장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큰 틀에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회도 국가 부문에 대한 작은 견제수단인 '감영관법' 하나를 가지고도 씨름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와 시장 모두를 살린다는 큰 틀 속의 논쟁이 아니라 법 자체의 실효성만 따지는 논쟁을 하고 있다.

답답하다. 비리와 부패 그 자체도 그렇지만 큰 틀의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아예 이야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다. 이라고도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

온라인 와글와글

고객 카드결제 때 신분증...그건 위조 안될까

○...내달 말부터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카드회사의 방침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이것도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아니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반대로 신분증 위조하면 장땡이잖아?", "이 정 책은 카드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알뜰한 수작이다. 분실카드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카드사가 아닌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업주들에게 돌리기 위해 만든 꼼수", "신분증 없으면 25만원씩 두 번 결제하면 되나요?" 등 비난이 쏟아졌다. "마누라가 이제 제 카드 가지고 가방 못 사겠네요. 만세"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은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중소 서점을 살리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은 "동네 서점 살리기는 무슨. 동네 서점주들 아무도 기대 안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중소 서점 살리려고 만든 법인데 사실상 중소 서점에 전혀 도움이 안 됨", "무슨 놈의 법들이 다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야?", "단통법 이후 뭐 같은 법만 생기는구나", "정부가 가격을 책정해 주는 이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마치 독재정부 같군요", "싸게 팔면 막는 나라"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작년 개정된 유통법을 빚어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대형 마트 강제휴무 시켰지? 그래서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더냐?"라는 지적도 눈에 띄었다. 김은총 기자 kec@

- 1 미국 타임지, 올해의 발명품 25가지 선정 공개
- 2 폴란드 시의회 공동이 푸 퇴출한 까닭
- 3 KT 가격인하 G3-베가아이언, 막강 스펙 살펴보니
- 4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심각, 층간소음 보복상용 등장
- 5 도서 제안한 수중 도시 프로젝트, 건설비만 28조원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오늘의 연예뉴스

www.baekn.com

'슈퍼스타K6' 마지막 승자 낙진연



배극남닷컴은 24일 낙진연을 만났다. 낙진연은 지난 21일 대담원의 막을 내린 엔트 '슈퍼스타K6'에서 김필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총 5억 원의 상금, 초호화 음반발매, 시상식 MAMA 스페셜 무대 등의 주인공이 됐다. 낙진연은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결심한 건 제 노래를 많은 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우승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오랫동안 길게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어송 라이더인 낙진연은 마지막 경연곡으로 자작곡 '자랑'을 선보였다. 낙진연은 사랑을 나눠 줄 만큼 행복할 사람이 되면 그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라는 내용 속 '그대'가 가리키는 실제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속소에서 쓴 곡이다. 김필 형한테도 그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 큰 의미를 두고 쓰진 않았지만, 듣는 분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진연은 "옛 연인, 엄마, 아빠, 친구 등 누구나 미안한 사람이 있지 않나.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각자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낙진연은 우승상금 용도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기에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열심히 살고 있는 저의 가족한테도 상금을 쓰고 싶다. 좋은 곳에 행복하게 쓰겠다"며 "기부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안 되는데..."라고 해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당고에 기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텍세트	순금네임텍세트	순금네임텍	출원기념품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골도시	VIP 골프기념품
순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보석볼마커	순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데스크 칼럼

‘호갱’ 양산하는 도서시장 구조

온갖 법석을 뒀던 도서정가제가 지난 21일부터 실시됐다. 신간이든 구간이든 책을 15%까지만 할인하도록 도서 가격의 할인폭을 정부 규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간인 경우 할인폭이 19%로 정해져 있었지만, 18개월 이상된 구간에 대한 할인폭은 정해지지 않아 오래된 책을 80%까지 깎아 파는 경우가 허다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입 며칠 전부터 온라인 서점들의 홈페이지에는 오래된 책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일부 온라인서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다. 서점이나 출판사들도 도서정가제 도입 전에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대폭적인 할인으로 고객을 유인했음은 물론이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책을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다. 이에 반해 웃은 세일을 해서 싸게 팔아도 되는데, 유독 책만 싸게 팔면 안되는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책 값이 싸우 소비자가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 하나는 외국 사례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가 150년 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15개 나라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가의 5%까지만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정부가 이처럼 도서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는 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책은 국민들의 의식



선년규 미래산업부 부장

수준·교육과 맞물려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화재 또는 공공재라는 것이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듯이 책 또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프랑스가 이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럿 있다. 프랑스 국민 1명이 1년에 읽는 독서량은 평균 11권 이 넘는 정도로 세계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큰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평균 27권에 불과하다. 물론 프랑스가 독서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오로지 도서정가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올바른 출판문화와 건전한 도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프랑스는 또 전통서점이 폐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오래 전부터 3500곳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전통서점 1200여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가 도서정가제 도입을 강행한데는 자금력을 내세운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의 가격 파괴전략을 막고, 죽어가

는 동네서점을 살려 독서의 대중화를 꾀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여기에 할인을 전제로 정가를 책정해오던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어, 책 값에 끼여있던 거품도 거둬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착한 책값’ 정착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혼동이 있고, 기존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제품마다 제조와 유통 프로세스가 있기 마련이라 한 곳에 이득이 간다면, 다른 곳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면 도입하는 게 우선이다.

이번 도서정가제를 놓고 얼마전 이동통신 분야에 도입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비해 ‘책통법’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단통법이 분명 단점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책통법’이라는 용어는 너무 여론 몰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통신 요금 정착을 위해 단통법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 요금에 여전히 거품이 끼여있듯이, 도서가격에도 거품이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출판사와 서점이 판매수-인기도서를 조작하면서, 도서문화와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도서가 문화재·공공재라는 점에서 도서정가제의 단점이 발견되면 다시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도서시장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일부 업체들이 패싱해사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가 책을 더 가까이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ngsun@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영똥한 데 손 벌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기업이 71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도 280개에 이른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회장님 보유 지분보다 국민연금 지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을 일컬어 ‘또 하나의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대한 보유지분을 앞세워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도 하나의 예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당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시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의 배당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연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주총 자리를 지켰던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넘겨줄 연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금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대체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익을 늘려 국민에게 넘겨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우려는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지극히 보수적”이라며 목소리를 킁돈다.

맞는 말이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은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02% 수준. 배당성



향 역시 17%로 선진국 평균인 43%, 신흥국 평균인 32%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상장사들도 배당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이같은 요구가 무리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에 와서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은 뭔가 어색하다. 정부 방침에 화답이라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

다.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동안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새어나간 돈이 48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영똥하게 연금을 지급해놓고 부랴부랴 환수작업에 나선 경우도 많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른다.

연금 가입자로부터 더 걸어간 돈도 62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연금을 크게 부풀려 다시 되돌려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배당확대를 시작으로 중시해서 큰 목소리를 내기 전, 수급관리를 포함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먼저 개선하는 게 순서다.

자본시장부 차장 junior@

객석

회색 구두와 아버지



조은진 크루셀렉 전략기획그룹 대리

멍기는 사람 구두가 더러우면 쓰잖나. 깨끗하게 하고 땀겨야지”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까만 구두약을 얹게 펴 바르며 열심히 광을 내고 계신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최성을 다하고 계셨다.

원래 딱한 회색의 반짝임이 없는 구두였지만 아버지께서는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셨던가 보다. 회색구두는 점점 검정색이 되었고, 반짝반짝 광을 내고 있었다.

비록 원래 구두의 느낌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검정색 구두를 받아 들며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께서 홀로 타지에 나가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뭐든 해주고 싶으셨으리라. 아버지의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지금도 나는 그 구두를 즐겨 신는다. 너무 까맣고, 부담스러운 반짝임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런 존재인 것 같다. 때문 자식을 위해서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존재 말이다.

부모님이라는 석자만으로도 가슴 뭉클해지는 이 겨울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수첩

삼성 채용제도 개편이 아쉬운 까닭



김지영 산업부/gutjy@

삼성의 워런 채용이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삼성은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의적 인재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제도 개편의 이유다.

삼성이 꺼내든 카드는 ‘직무적합성평가’ 도입이다. 직무 역량이 확인된 지원자에게만 SSAT 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 SSAT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춘 모든 지원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던 탓에 ‘한번 보자’ 식의 허수 응시생이 몰렸다. 연간 응시자만 20만명에 달했다.

결국 삼성은 직무적합성평가를 도입하며 서류전형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출신대학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 단계 장벽이 생김 셈이다.

삼성의 워런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제도 개선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다.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부작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채용제도 개편이 아쉬운 이유는 운용의 묘를 살릴 정책보다 지원자 제한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채용제도 개편의 이유는 20여년 전 SSAT 도입 때처럼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다. 그러나 이공계 풀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직무적합성평가는 IT(정보기술)-전기전자 등 이공계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은 하드웨어 경쟁력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해 나가고 있다. 이 시점에 필요한 인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다. 윗반기 삼성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 중 이공계 비중(호텔부문 제외)은 80~90% 수준에 달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이들에 대한 문은 지금보다 더 활짝 열려야 한다.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Table with columns for departments and phone numbers: 논설실 (02)799-2657, 정치경제부 (02)799-2650, 산업부 (02)799-2664, 문화부 (02)799-2669, 광고입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자본시장부 (02)799-2658,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사정팀 (02)799-2634, 금융시장부 (02)799-2665,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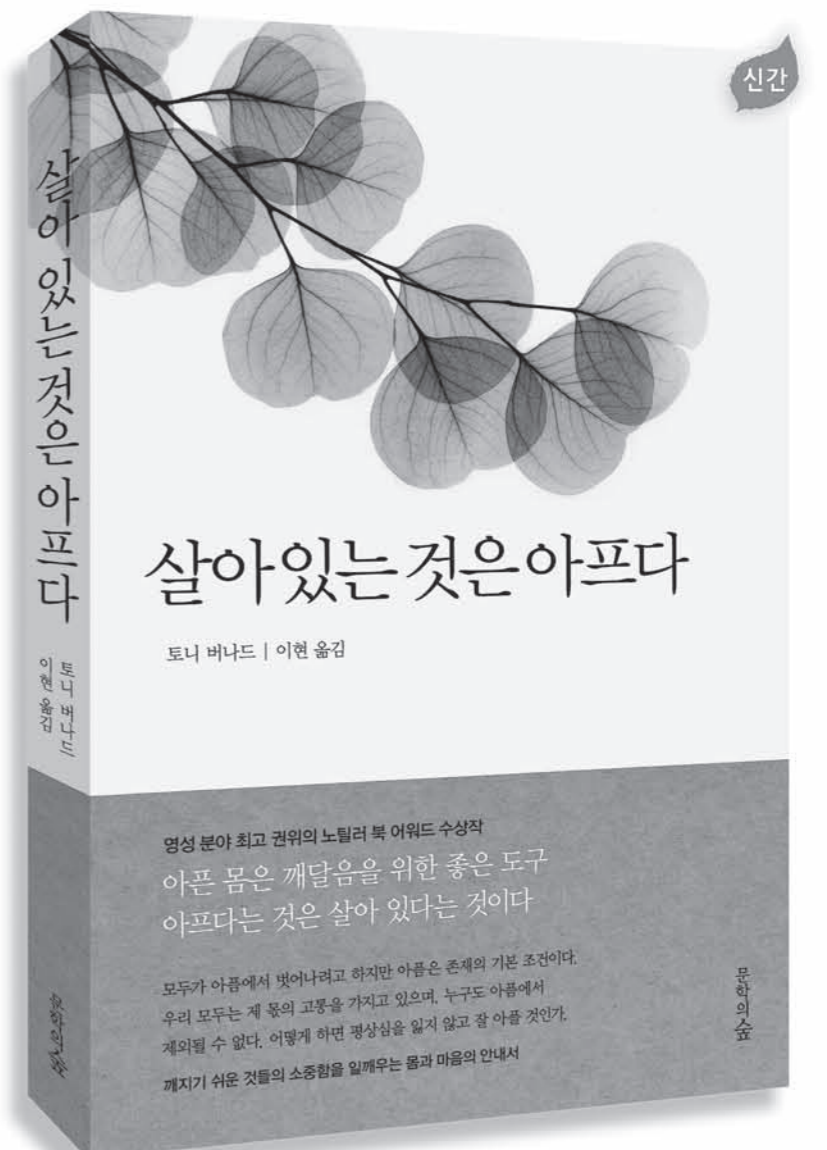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차방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02)325-5676



“사회 변화 이끄는 소셜임팩트 기업 필요”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은 24일 서울 웨라톤 위커툐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 네이션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소셜 임팩트’를 제시했다.

김 의장이 생각하는 소셜임팩트 기업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 분야 또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무적인 성과도 달성하는 기업이다.

그는 의료보험 소외계층에게 월 4달러에 필수약품을 공급하는 월마트, 커피 농가에 10년간 2500억원을 투자하고 네스프레소의 사업 매출을 26배 성장시킨 네슬레를 소셜임팩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다.

또 김 의장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을 이끌게 된 경험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전달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Right Time, Right Action’, 즉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스타트업...’ 기조연설
“월마트·네스프레소 등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 유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 창업의 생존 갈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24일 서울 광장동 웨라톤 위커툐 호텔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네이션스 서밋 2014'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jjjak@

“덜컥 떨어진 사람과 채팅하는 ‘연결된 세상’의 경이로움에 도취해 3개월간 후배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연구했고 이후 삼성SDS에 입사하면서 PC통신 비즈니스를 접할 수 있었다”며 “이후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창업의 첫 걸음마를 떼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게임의 성공 비결도 함께 설명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인터넷 클라이언트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과 둘째는 한게임 서비스의 ‘부분 유료화’였다. 김 의장은 “일본에 한게임을 내놓으면서 1년에 50만 번 일본을 왕복했는데 비즈니스 좌석을 처음 타보며 깨달음이 왔다”면서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차이점에서 얻은 교훈을 게임에 적용했고 부분 유료화는 서비스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에서 2년간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답을 내렸고 ‘카카오톡’ 제작에 뛰어들어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도 자신이 20대 시절 ‘연결된 세상’을 처음 경험하며 창업하기로 결심한 배경과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케이큐브 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고 100인의 CEO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까지 블랙버드, 컴퍼니얼스, 핀콘, 넷톤 등 총 36개의 스타트업 CEO를 지원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h19@

신경숙 ‘외판방’ 美 독자 만나다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이어 세 번째

소설가 신경숙(사진)의 대표작 ‘외판방’이 미국에서 출간된다.

신 작가의 해외 판권을 관리하는 KLM매니지먼트의 이구용 대표는 최근 미국 출판사 ‘페가수스북스’와 ‘외판방’ 영문판 판권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외판방’의 영문판 출간은 내년쯤이 될 것”이라며 “신 작가의 작품이 2011년부터 꾸준히 미국에 소개되고 언론과 독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현지에서 ‘신경숙’이란 브랜드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5년 발표한 ‘외판방’은 열악한 환경에서 문학의 꿈을 키운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담긴 소설이다. 이 소설은 고향을 떠나 구로공단의 외판방으로 들어간 열여섯 살의 주인공이 회재 언니의 죽음으로 외판방을 뛰쳐나오는 열아홉 살까지 열악



한 노동환경과 삶의 무게로 신음한다는 내용을 그린다.

신 작가의 작품이 미국 독자와 만나려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다. ‘엄마를 부탁해’는 2011년 미국에서 번역 출간돼 큰 주목을 받았으며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올해 6월 미국에서 번역돼 나왔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304상독회’ 세 번째 행사 오는 29일 오후 3시 4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ipip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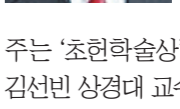
이주열 한은 총재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사회 각 분야 5명이 ‘2014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에 선정됐다.

올해 연세상경인상에는 권승화 EY한영 대표이사(산업·경영 부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봉사 부문), 고병현 금비·삼화왕관 주식회사 회장(특별공로상), 김한민 영화감독(학술·문화 부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서울 삼성동 그랜



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2014 연세상경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상경·경영대 교수에게 주는 ‘초현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김선민 상경대 교수와 윤대희 경영대 부교수가 수상한다. 정경진 기자 jungkj@

백석 시집 ‘사슴’ 초판본 낙찰 받은 장인제약 지경환 대표

“온 국민 볼 수 있도록 문학박물관 지어 기증”

10여년간 국내외 문학작품 초판본 수집

“기부는 중독성이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을 혼자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보고 같이 소유하는 게 더 기쁩니다.”

국내 근현대 문학 서적 경매 사상 최고가인 것으로 알려진 7000만원에 백석의 시집 ‘사슴’ 초판본을 낙찰받은 주인공인 장인제약의 지경환(49·사진) 대표.

지 대표는 이 시집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간 수집해온 국내외 문학작품 초판본을 온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문학박물관을 지어 사회에 기증할 생각이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국내 근현대 문학작품 초판본과 노벨문학상 수상작 초판본 등 국내외 문학작품 초판



본을 수집해왔다. 지 대표의 꿈은 사재를 털어 모은 희귀 초판본을 ‘문학 박물관’을 지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이다. 이번에 7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사슴 초판본을 낙찰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1936년 1월 발간된 사슴의 초판본은 100부밖에 찍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

서 희귀본으로 꼽힌다.

지 대표는 “여태껏 수집한 문학작품 초판본을 사회에 기증할 때 백석의 사슴은 꼭 있어야 하는 책 중 하나였다”며 “시집을 기증할 생각이어서 금액과 상관없이 경매에 입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은 모든 국민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4만~5만평 규모의 부지에 3000평 규모의 문학박물관을 지어 지금까지 수집한 책을 사회에 기증할 계획이다. 그는 “외국의 문학박물관에 가보니 콘텐츠·박물관 관리도 잘 돼 있었다”면서 “한국 문학박물관을 돌아보고 실망 했는데, 문학박물관을 지어 운영 노하우까지 마련해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jh@



유상욱 코리안 회장 농업박물관에 유물 기증

유상욱(사진) 코리안화장품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해온 토기와 도자기류 등 29점의 화상 및 농업관련 유물을 충남 청양군 내치면 상갈리에 있는 농업박물관에 기증해 화제다. 유 회장이 기증한 유물 중에는 삼국시대 토기장경호와 조선시대 백자 제기 등이며, 희소 가치가 높은 백자 떡살도 있다.

코리안화장품은 유 회장이 유년시절을 보낸 청양에 들어선 농업박물관이 지역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보급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40년간 직접 모은 유물 중 일부를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개인 소유 유물을 계속 기증할 예정”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코리안 화장품 문화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 박물관인 ‘코리안 화상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유 회장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해외를 돌며 모은 각종 우리 유물 200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선애 기자 isa@

영 윌리엄 왕세손, 내년 초 중국 간다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왕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왕세손 부부의 동시 방문을 희망하나 내년 4월에 출산을 앞둔 케이트 미들턴 빈이 방중 일정에 함께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윌리엄 왕세손의 방문은 지난 198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의 방중 이후 영국 왕실 핵심인사의 공식 방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들턴 빈의 둘째

출산 일정을 고려해 내년 3월 이전으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윌리엄 왕세손의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친분이 있어 중국 정부와는 끈끈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만찬에 불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2년 데이비드 카머런 영국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면서 양국의 외교관계는 흔들리기도 했으나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오른쪽)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신화/뉴시스

작했다. 지난 6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영국을 방문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윤상현·메이비 “내년 2월 결혼해요”

배우 윤상현(43)과 가수 메이비(35)가 내년 2월 8일 결혼한다. 윤상현 소속사 엠비지엔터테인먼트는 24일 “윤상현씨가 양가 어른들로부터 결혼식 날짜를 받았다”며 “아직 결혼 준비 초기 단계라 식장, 사회, 주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밝혔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 4월 소개로 만나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

한편 윤상현은 24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프로포즈에 대해 고백했다. 그는 “얼마만까지는 않았지만,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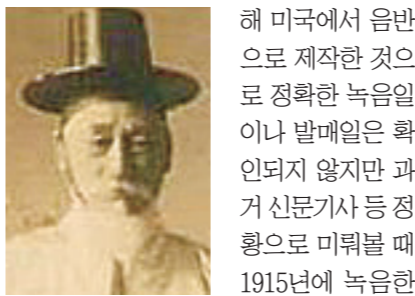
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라며 “주방에서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엄마의 뒷모습 같았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국창’ 이동백 1915년 춘향이 음반 발견

조선 말기 판소리 5명장 중 한 명인 이동백 명창이 100년 전인 1915년 미국 음반사 ‘빅터’에서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소리 춘향가 SP음반(유성기 음반) 희귀본 2장이 발견됐다.

음반수집·국악평론가인 김문성씨는 미국에서 입수한 이 음반을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문화집 쿠푸스에서 열리는 ‘반락 공연’에서 일방에 공개할 예정이다. 충남 서천 출신의 이 명창은 판소리사에서 가장 뛰어난 ‘국창’으로 꼽힌다.

이번 음반은 일제 강점기 미국 음반사 ‘빅터’의 기술자가 직접 서울에 와서 녹음



해 미국에서 음반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녹음일이나 발매일은 확인되지 않지만 과거 신문기사 등 정황으로 미루볼 때 1915년에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이 명창의 춘향가 음반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음

▲서정일(코오롱글로벌 상근교원) 부친상 = 24일 오전 6시,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58-5940

▲김선우(송암문화재단 감사·선혁(금회상사 대표)씨 모친상, 김대순(SK플래닛차장)형수(삼성전자DMC연구소·지윤(서울대 사범대 박사과정)씨 조모상 = 24일 오전 1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44

▲윤록림(메트로팜 대표)·경림(KT 미래전략융합실장)·윤승(영글리시북센터 대표)씨 부친상, 김윤우(KTH 컨텐트기획팀장)씨 장인상 = 23일 오후 4시 20분, 서울대병원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오포시 시안공원, 02-2072-2020

▲박성호(세누리당 창원·의정 국회의원)씨 부친상 = 24일 오전, 경남 창원 파타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055-270-1000

▲강봉식씨 부인상, 강성운(KT광양지점)·상백(신안 암태초등학교 행정실장)·서화(KT 전남본부)씨 모친상, 송기동(광주일보 사회2부장)씨 장모상, 최금선-나은-조송희(전남대병원)씨 시모상 = 24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301호, 발인 26일, 062-227-4000



꼭! 짙은 '단골 종목' 영양가 있네



Cover Story

'후강통' 관심종목 총정리

후강통 개막은 또 하나의 투자처를 넘어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빗장이 풀리면서 금리 인하로 갈 길을 잃은 투자자금이 대거 중국시장을 결심하고 있다. 투자자의 눈이 국내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을 향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이다. 자연스레 주요 증권사의 추천종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출범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후강통이 낫선 것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는 후강통 정보 대부분은 중국 현지법인이 제공하는 것을 다시 가공하는 수준이다. 중국 증권사 리포트를 손질해 내놓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주 중심으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위험·중수익의 종목에 관심 집중 = 이렇듯 제한적인 투자 환경은 공격적인 투자에 걸림돌이다. 이른바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후강통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못 된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중국 현지에서 리서치 인력을 둔 곳은 유안타증권 정도다. 대만계 유안타증권은 상하이와 홍콩 지사의 리서치 인력이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밖의 증권사는 중국 전문 연구원을 발빠르게 영입해 현지 정보를 취합해 가공하고 있다. 다만 1차 정보가 아닌 재가공한 2차 정보인 만큼 투자여건은 제한적이다. 일부 증권사는 애당초 현지에서 리서치 인력을 확보하기보다 다른 투자자문사의 중국 법인의 분석을 빌리기도 한다. 이들에게 리서치 대행을 맡기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중국기업을 직접 탐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는 힘든 상황. 자연스레 현지 기업의 향후 전망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정보가 부족한 일부 증권사는 아예 후강통 추천종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40.7%가 증권사에널리스트의 추천종목을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결국 초기 투자자는 증권사 추천 종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요 증권사는 후강통 개장 초기부터 주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큰 수익을 얻기보다 후강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중국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나오고 있는 후강통 추천종목은 홍콩과 중국 상장사

“중기업 정보 부족...보수적 접근 필요”
증권사, 출범 초기 리스크 관리 차원
대형주 중심 중위험·중수익상품 추천
상하이자동차·바오산철강 추천 종목
이리산업·상하이자동차·귀주모태 등도

들 가운데 향후 전망이 뚜렷한 회사, 즉 수익률이 확실한 종목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형주를 비롯한 시장 주도주에 보수적인 접근 많아 =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모건스탠리, HSBC, 크레디트스위스(CS), 노무라 등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이 밝힌 전략과 추천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총생산(GDP) 민감주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주목하라고 권고했다. 또 홍콩증시 H주에 비해 저평가된 본토 A주를 발굴하라며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추천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주목하리면서 중국석유화학 집단공사(시노펙)의 상하이페트로케미칼을 예로 들었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홍콩 종목으로는 HSBC홀딩스가 선정됐다. 후강통 실시로 홍콩증권거래소

를 운영하는 HKE&C 역시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의 주요 추천 종목을 살펴보면 산업군에서 상하이자동차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주요 증권사별로 중국국제여행사를 추천하는 곳도 많았다. 유제품과 병과류를 생산하는 이리산업과 중국 3대 화장품 업체로 불리는 상하이화화 역시 각 증권사가 밝힌 후강통 추천종목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 스즈키모태(중류주 제조) 스레노버(전기 전자) △ICBS(중국공상은행) △상해복성제약(의약품 개발 및 생산) 등이 후강통 추천 단골종목이다.

후강통 개장 첫 날 시세차의 매도세로 현지 증시는 하락만전했다. 주간 단위도 1.3%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가 추천한 주도주 대부분은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개장 초기 중위험·중수익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고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분간 후강통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초기인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쌓이기 전까지 안정적인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 결국 당분간 후강통 투자는 중국 증시의 주도주 중심의 성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신원홍-이은주 연구원은 후강통 투자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 및 건강·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헬스케어 섹터, △청정에너지,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른 △IT 섹터, △철도 및 추가 인프라 투자, △보험, △레저 등이 유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보험·헬스케어·주류·고배당株 길게 보고 담아라

증권사	유망 섹터	종목
KDB대우	희소성, 고배당, 저평가, 필수소비재, 럭셔리소비재, 7대 신흥산업	상하이 자화, 내몽고이리산업, 하이리훈, 중국국제여행, 중국항공 전자, 형안국제그룹, 텐센트, BYD, 동방통신, 향천전자, 낙타그룹
우리투자	헬스케어, 유틸리티, IT, 인프라 스트럭처, 보험	복성제약, 중국약학그룹, 보리협흥, 텐센트, 중국중철, 중국평안보험
한국투자	여행, 헬스케어 및 중의약, 주류, 국방·군수, 미디어, 은행, 에너지, 유틸리티, 운수	유통객차, 상하이자동차, 복성의약, 칭다오하이얼, 화위자동차, 용기 고분, 심천가스, 중국평안보험, 중국국어, 바이오신강철, 중국석유화학, 중신증권, 중국연통, 동인당, 중국청년여행사, 상해가화, 천부에너지, 귀주모태, 중천과기, 상해기전, 중가고신, 항공동력, 대진철도, 용흥통용
유안타	의약품, 소프트웨어, 주류, 의약품 유통, 보험, 은행	천진천사력제약, 향천정보, 귀주모태주, 상해제약그룹, 중국평안보험, 안휘해라시멘트, 초상은행, 인민망, 상해장강하이테크, 중국해양유진 서비스
키움	디스카운트, 저평가, 배당수익률, 고성장, 희소성, 주식거래 제도 개선 수혜	안휘이론치시멘트, 장수고속도로, 중국평안보험, 폴리부동산그룹, 칭다오하이얼, 베이멍구이리사업, 상하이국제공항, SAIC자동차, 중국건설은행, 대진철도, 중국공상은행, 중국 사우스 로코모티브&롤, 용유소프트웨어, 이리우업, 강원요우에, 텐스리, 국제여행사, 청년 여행사, 모우타이, 해통증권, 중신증권, 화태증권
삼성	신성장, 구조적 성장기업, 고배당, 저평가	텐센트, 징둥, 중국국제여행사, 상해복성제약, 중신증권, 상하이자동차, 상해발전은행

증권사 추천, 투자 유망 종목은

후강통이 시행되자 각 증권사들은 유망 종목을 선별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강통 이슈를 선반영한 상하이종합지수가 올해 18% 급등세를 연출하며 단기적으로 우려도 엿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또 증권주, 소비주, 배당주를 비롯해 거래 활성화, 성장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등 투자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형주 구성 SSE380·ChiNext

후강통 시행 후 48%·103% 상승세

투자자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무게 여행·증권·운수·IT 등 유망 섹터로

상하이종합지수는 2009년 80% 급등 이후 2012년부터 1850-2450p 사이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중형주로 구성된 SSE380과 신성장 산업 비중이 높은 ChiNext는 각각 48.4%, 103.8% 상승해 후강통 시행 이후 대형주보다 중형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은 중장기적 성장산업 내에서 두드러진 성장성을 가진 종목, 상하이 또는 홍콩 증시에만 상장돼 있는 희소성 있는 종목, 고배당 종목, 저평가 종목을 추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필수 소비재, 럭셔리 소비재, 7대 신흥산업과 관련한 종목들이 추천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상하이 자화, 내몽고이리산업, 하이리훈, 중국국제여행, 중국항공전자, 형안국제그룹, 텐센트, BYD, 동방통신, 향천전자, 낙타그룹이 그런 종목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후강통 개시 자체보다는 매크로, 기업 펀더멘털, 정부정책 방향에 기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증시 투자에 있어서 섹터나 종목 선정이 필요한 가운데, 중국 경제, 인구구조 변동, 정부 정책 수혜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IT, 인프라 스트럭처, 보험 등을 유망 섹터로 선정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유기업, 과잉생산능력 보유 섹터, 시장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섹터 등은 당분간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을 이끌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Commerce,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IT 섹터가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복성제약, 중국약학그룹, 보리협흥, 텐센트, 중국중철, 중국평안보험 등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 개방 관점에서 중국 A시장을 장기적으로 매수할 시기로 보고 있다. 또 중국 상

하이 A주와 홍콩 H주의 가격 차이, 업종별 비중, A주 시 단독 상장 매력도, 배당 등 특정 테마 등을 감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 헬스케어 및 중의약, 주류, 국방·군수, 미디어 등의 업종은 희소성의 측면,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민생보장, 외교 등의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민생보장,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개선 등의 정책 추진으로 기업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상하이 증시의 배당수익률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에너지, 유틸리티, 운수 등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유망한 한국 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객차, 상하이자동차, 복성의약, 칭다오하이얼, 화위자동차, 용기고분, 심천가스, 중국평안보험, 중국국어 등을 장기 관심종목으로 꼽았다. 바이오신강철, 중국석유화학, 중신증권, 중국연통, 동인당, 중국청년여행사, 상해가화, 천부에너지, 귀주모태, 중천과기, 상해기전, 중가고신, 항공동력, 대진철도, 용흥통용 등은 중기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중국 최대의 중의약 개발업체인 천진천사력제약을 의약품 업종의 톱픽(Top-pick)으로 제시했고, 소프트웨어 대표주인 향천정보, 주류업체인 선도주인 귀주모태주, 의약품 유통업체인 상해제약그룹, 통합금융정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평안보험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정책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안휘해라시멘트, 기업·개인금융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초상은행, 온라인 사업 확장으로 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민망, 하이테크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해장강하이테크, 효율 개선과 기술 개발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해양유진서비스 등을 추천했다.

키움증권에서는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안휘이론치시멘트·장수고속도로·중국평안보험, 저평가 글로벌 기업인 폴리부동산그룹·칭다오하이얼·베이멍구이리산업·상하이국제공항, 배당수익률이 높은 SAIC자동차·중국건설은행·대진철도, 선도기업인 중국공상은행·중국 사우스 로코모티브&롤, 고성장 기대주인 용유소프트웨어,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음식료업의 이리우업, 중의약의 강원요우에·텐스리, 여행 면세업을 하고 있는 국제여행사·청년여행사, 백주업인 모우타이 등을 꼽았다. 또한 주식거래 제도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해통증권·중신증권·화태증권 등도 포함했다.

삼성증권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접근은 곤란하다며, 중국 대표기업을 우선적인 투자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정책, 경기흐름, 인구구조, 기업현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값비싼 시행착오를 뒤흔들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기업, 고배당-저평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목별로는 텐센트, 징둥, 중국국제여행사, 상해복성제약, 중신증권, 상하이자동차, 상해발전은행 등을 제시했다.

하장청 기자 jcha@

THINKWARE

64GB UHS-I 메모리 공식 지원
안전운행 도우미
전·후방 자동 영상 밝기 조정
브레이크 작동 기록
WDR & Super Night Vision
2중 안심저장 Dual Save
음성인식 시스템
전·후방 SONY CMOS 센서 적용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S
전·후방 Full HD & Full HD 화질

세상이 기대하는 이 모든 기술을 담아

Outstanding, 모두를 압도하다

아이나비 QXD900 View

Full HD & Full HD
전·후방 모두 1080P Full HD 및 20.7MP CMOS 센서 탑재. 2배의 밝기, 2배의 영상 화질 보장.

LDWS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도우미.

2중 안심저장
중요 영상은 2중 저장. 전·후방 영상은 2중 저장. 전·후방 영상은 2중 저장.

음성인식
음성인식을 통해 20만 명 이상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탑재.

* 전·후방 모두 1080P Full HD를 지원하며, 동시 녹화 가능. 30fps를 유지하여 끊김 없이 영상이 녹화됩니다.
 * QXD900 View에 적용된 LDWS 기능은 주행 중인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여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거나 차선 이탈 경보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 같은 용량을 사용할 시 성능이 우수한 인텔 내장 NAND Flash (M25Q512) 256MB를 탑재하여 동시 2중으로 저장하여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 4인치 터치 스크린, LCD 화면 ON/OFF 및 전등등류 등 운전 중 필요한 기능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SONY Exmor CMOS 센서와 WDR기능으로 완벽한 영상 구현 * 전·후방 카메라 개별 밝기 조절 * GPS를 통한 단속지점 안내 안전운행 도우미 * 브레이크페달의 사용 여부 저장

아이나비

중 증시 장점 어떤 게 있나

높은 배당성향

상하이자동차 작년 수익 절반이상 환원

산업별 성장성

세계 최대 차시장·고령화에 보험도 안정

세금부담 감소

외국인 자본이득세 면제 투자자금 유입

우선 중국 A주시장은 성장성 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한다. 특히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내 증시보다 더 낫다는 평가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의 배당성향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상하이자동차는 지난해 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은 8.5%였다. 1만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연말에 85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뜻이다. 현대차의 배당수익률이 0.9%(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상하이자동차 외에도 자동차용 유리 제조업체 푸야오글래스의 배당률은 4.8%, 다진철도는 5.5%의 매력적인 배당률에 PBR도 8.6배로 비교적 낮다. 중국 정부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 상하이증시의 배당수익률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별 성장성도 만만치 않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의 12%를 소비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글로벌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인한 보험시장 성장이 예고되며 보험·금융업도 성장에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국 정책 당국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향후 3년 동안 상하이 A주를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도 3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향후 해외 자금의 유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요약하면 높은 배당성향, 향후 성장성, 세금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증시보다 장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저평가된 본토A주' 찾고 '경제성장률 민감주' 베팅

글로벌 5대 투자기관이 점찍은 유망종목

전 세계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후강통' 시대가 개막됐지만 막심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기대감 탓에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보 부족에 따른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탓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에 전 세계 증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기관이 주목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 골드만삭스** 구이저우마오타이·농업銀
- 모건스탠리** 중국석유화학공정집단공사 등
- HSBC** 명뉴유업·샌드차이나 주목
- 노무라** "IT업종 대표종목 오를것"
- 크레디트스위스** A주 상하이車, H주 텐센트

◇"따로 또 같이"...투자 방법 다양·최근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모건스탠리, HSBC, 크레디트스위스(CS), 노무라 등 5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밝힌 후강통 투자전략과 추천 종목들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상하이 또는 홍콩 증시에만 상장돼 있는 중국 대형주에 주목할 것을 주로 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글로벌 투자기관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이 추천한 종목들 대부분은 본토 A주, 그중에서도 내수소비재, IT, 헬스케어 업종이었다.

물론 골드만삭스도 국내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종목보다는 홍콩 증시 H주에 비해 저평가된 본토 A주를 발굴하려고 추천했다. 상하이A주가 H주보다 더 경제 성장에 민감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종목 선택의 기회가 넓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민감주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에 주목하는 투자전략을 추천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구이저우마오타이(주유)와 함께 농업은행(은행), 바이오산철강(철강), 중국국영국제회의전람유한공사(CITS)(여행), 푸싱의약(제약), 종신증권(증권) 등을 꼽았다.

반면 모건스탠리는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주목하리면서 중국석유화학공정집단공사(시노펙)의 상하이페트로케미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량주 기업인 HSCB홀딩스PLC, 홍콩 주식 거래를 주최하는 홍콩증권거래소 등도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인프라스트럭처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 들어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증가가 관찰되는 등 향후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상하이국제공항(공항), 다진철도(운송), 중국양쯔전력(수력발전) 등을 꼽았다.

◇"업종별 대응 나서야"...IT, 소비재 업종 등=글로벌 투자기관과 국내 증권사들이 의견을 같이한 부분도 있었다. 후강통 실시에 따른 투자 유망업종으로 IT업종을 공통적으로 꼽은 것.

신화증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후강통 개시 직후 빠른 랠리에 따른 단기적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 역시 IT, 통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 역시 업종별 투자전략을 권하면서 자동차업종과 소비재 그리고 IT업종 대표종목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CS 역시 A주 중에서는 상하이자동차(자동차), 칭다오하이얼(가전)의 주가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H주에서는 텐센트홀딩스(IT), 레노버그룹(IT)을 '톱픽'으로 제시했다.

IT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업종과 소비재, 에너지업종 등도 추천했다.

HSBC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킴소프트와 유제품업체인 명뉴유업에 주목했다. 또한 카지노산업의 성장과 함께 SJM홀딩스와 샌드차이나, 갤럭시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전망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후이론치시멘트(건설자재), 광저우R&F 프퍼티(부동산), GCL-폴리에너지홀딩스(태양열), 쿤룬에너지(천연가스)도 유망종목 리스트에 포함됐다.

문선영 기자 moon@

내년 중증시 전망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증장기 추이 및 전망



"6년만에 강세장... 2400~3000P 간다"

(상하이종합지수)

부동산 규제완화·통화정책 등 호재 '심항통' 연계 정책 내년 논의될 듯

증권업계는 2015년 중국 증시가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선택적 경기부양 조치와 후강통(상하이-홍콩거래소 간 주식 교차거래)이라는 우호적 수급조건이 맞물리며 반등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상승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국 주식시장은 6년 만에 강세장을 맞이하며 상하이종합지수 기준 2400~3000포인트까지 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증시의 강세 요인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 등 경기경착륙 요인을 제어,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적 성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강통에 이어 주식시장 개방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증시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심항통(심천-홍콩거래소 간 주식교차거래)연계 정책이 2015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 경기가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환경도 양호한 상황이다.

우호적 수급 상황과 중국 증시가 주요국 주식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내년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현재 주가수익비율(P/E)은 과거 5년 평균대비 30% 이상 하단 수준이다. 정부 정책지원으로 서비스업·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2015년 EPS증가를 예상치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아울러 후강통의 확대와 이를 계기로 한 중국 A주의 MSCI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중국 주식시장의 매수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연주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배당·밸류 매력으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돼 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약 20% 상승폭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중국 증시가 강세장으로 전환된다면 6년 만에 강세장의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라며 "중국 증시는 지난 1996년 경험했던 리레이팅 사이클과 2005년 버블 사이클의 중간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MSCI CHINA 섹터별 수익률: IT 섹터 23% 상승 단위: % *MSCI는 H-shares 및 B-shares 등으로 구성 *출처: 블룸버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1.2, 자유소비재: -3.4, 금융: -3.8, 소재: -7.0, 에너지: -8.2, 필수소비재: -17.8

IT: 22.8, 헬스케어: 17.1, 통신: 16.8, 유틸리티: 4.6, MSCI CHINA: 0.7

행복을 곁에 주세요

행복이 더 퍼지도록, 행복이 더 커지도록 메리츠화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행복을 지켜주는 보험

(주)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

- ▶ 고객맞춤 보장설계 (해당 특약가입시)
-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 현물보상 솔루션 (해당 특약가입시)
- ▶ 입원시, 퇴원 후 간병인 지원 • 입원부터 퇴원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 ▶ 멀티디스커트: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66-7711

행복을 곁에 두세요 MERITZ 메리츠화재

신변보험료 상한액 2014-15204 (2014.6.16) •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유의사항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KT&G | 전국민 행복 프로젝트



사람을 향한 마음 = 행복을 나누는 세상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존중받고 이뤄지는 세상.
 KT&G는 상상을 현실로 바꿔가는 노력과 다양한 활동들로
 모두를 위한 내일의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T&G와 함께 더 행복한 내일"

아이폰 케이스 대박 코스닥 '블루칩'으로

슈피겐코리아  슈피겐

5일 상장...한달도 안돼 주가 2배
글로벌 유통채널 확장에 힘 쏟아
아이폰6 출시 이후 성과 가시화
한달간 美 아마존서 61만개 판매
넥서스6 출시도 호재...예약 품절

슈피겐코리아가 전 세계 최고 모바일 패션 브랜드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이는 주가가 잘 말해준다. 지난 5일 코스닥 상장 당일 종가 4만2650원이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9만원을 돌파하며 8만4천원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슈피겐코리아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업체다. 대표 브랜드는 프리미엄 모바일패션 B2C 브랜드인 '슈피겐(Spigen)'이다. 주요 제품은 모바일기기에 적용되는 스마트폰 액정보호 기능성 필름과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패션가방 등이다.

슈피겐코리아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성장률 39.3%, 영업이익률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63억원과 139억원을 기록해 설립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반기 역시 고속 성장세다. 이 회사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의 9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88% 증가한 실적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그동안 전략적으로 회사의 주요 제품인 아이폰 케이스의 글로벌 유통채널 확장에 힘쓴 결과"라며 "지난 9월 아이폰6가 출시되면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피겐코리아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업계 최대 글로벌 유통망 확보를 기반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실제 아이폰6가 출시된 9월 한달 동안 슈피겐코리아의 아이폰 케이스는 미국 아마존에서만 61만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다. 또 이번 3분기 실적에는 아이폰6와 관련된 매출이 일부만 반영돼 4분기까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이폰6에 이어 구글 넥서스6 출시도 이 회사에 호재다. 회사 측은 "넥서스6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예약 판매가 진행된 이후 몇 시간 만



▲아이폰6 네오하이브리드EX 메탈
◀넥서스6 슬림 아머

에 품질별 만큼 구매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식 판매가 예상돼, 향후 슈피겐 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넥서스6가 정식 판매되기 전부터 슈피겐 브랜드 제품은 이미 각종 사이트에서 베스트 케이스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뉴스사이트인 헤비닷컴(heavy.com)에는 넥서스6 베스트 케이스 TOP 5에 슈피겐 슬림아머가 1위에 랭킹되어 있으며, IT전문 매체인 폰아레나(Phonearena.com)에도 넥서스6 베스트 케이스 TOP 10에 슈피겐 울트라하이드리드와 슬림아머 두 제품이 올라와 있다.

또 슈피겐코리아는 업계 최다 수준의 글로벌 유통망을 성장의 기폭제로 삼을 예정이다. 슈피겐코리아는 현재 100여개국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해외총판과 아마존, 이베이를 비롯한 수많은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코스트코, 스테플스 등 약 2000개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갖추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유통지배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로 모바일과 사람을 잇는 '모바일 라이프 디자인 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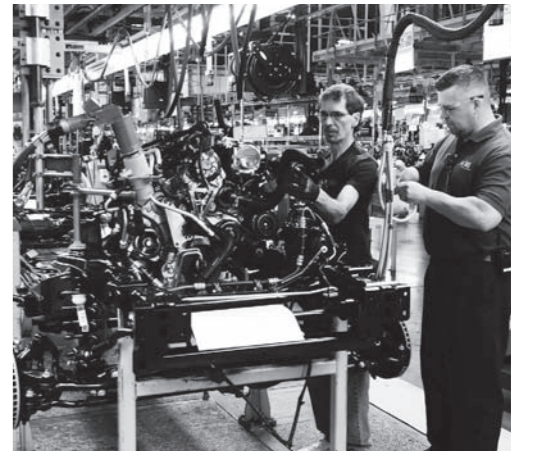
특히 슈피겐코리아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508억7500만원의 자금을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엔진 장작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센터 증설과 연구개발(R&D) 디자인센터 역량 제고에 재투자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 견인을 목표로 직판 등 유통채널 다각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이 B2C 브랜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듯 성장기업으로서 주주들과 함께 호흡하며 투자자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코스닥시장의 블루칩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GM·BMW 등 부품공급 2020년 '글로벌 톱5' 목표

GM 주차브레이크·BMW 램프...
핵심부품 수출 차종·품목 늘려
600억 투자 용인 전장연구동 신축
하이브리드차 부품기술 선점 나서



최근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는 해외 수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 현지인 중심 영업체제 구축, 수출 다변화를 위한 선진시장과 신형 시장에서의 투-트랙(Two-Track) 영업전략과 대대적인 해외부품전시회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제품경쟁력이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되면서 회사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가 발표하는 전 세계 자동차부품업체 글로벌 톱100 순위에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6위를 기록하며 '2020년 Global Top 5' 비전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서 부품 수출 주주 이어져 = 최근 몇 년간 현대모비스는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선진 완성차 메이커에 자동차 핵심부품을 잇따라 수출하면서 경쟁업체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대단위 모듈뿐 아니라 모듈을 구성하는 부품 중 반드시 필요한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GM에 주차브레이크, BMW와 폴크스바겐에 램프, 다임러에 IBS(지능형배터리센서) 및 오디오, 크라이슬러에 헤드램프와 하이 센서(차고센서), 스바루에 리어 램프, 미쓰비시엔진 헤드램프 수주 등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며 점차 적용 차종과 공급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처럼 해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품경쟁력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국내 자동차산업에 모듈화를 접목, 국내 완성차의 품질 및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해 오면서 이제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또한 자동차 모듈 제품을 단순조립형에서 벗어나, 최적의 부품조립 단위의 개발부터 품질까지 확보하는 기능통합형 모듈로 발전시켜 왔다. 모듈에 적용되는 핵심부품인 차체대 에어백·지능형 브레이크 시스템·변속기·전자식 조향장치·첨단 램프 등도 직접 개발·생산함으로써 모듈부품의 성능을

현대모비스는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선진 완성차 메이커에 자동차 핵심부품을 잇따라 수출하면서 글로벌 위상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

◇첨단기술 중심 체질개선...해외 메이커로 수출 전체 매출 20%까지 확대 = 현대모비스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기존의 기계시스템 부문에 첨단 전자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차선유지·자동주차·충돌회피·차간거리 제어기술 등 미래 지능형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향후 전개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부품 기술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 600여억원을 투자해 전장연구동을 신축했다. 기존 연구동에서 모듈제품과 전자장치부품의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듈제품 설계 및 개발은 기존 연구동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지능형 자동차 구현을 위한 각종 전자장치제품 개발은 전장연구동에서 전담하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 및 핵심부품 거점 전략에 발맞춘 현지 R&D 체계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현재 유럽·중국·북미·인도 등에 운영 중인 현지 R&D 센터를 적극 활용해, 해당 지역별로 특화된 현지 적합형 전략제품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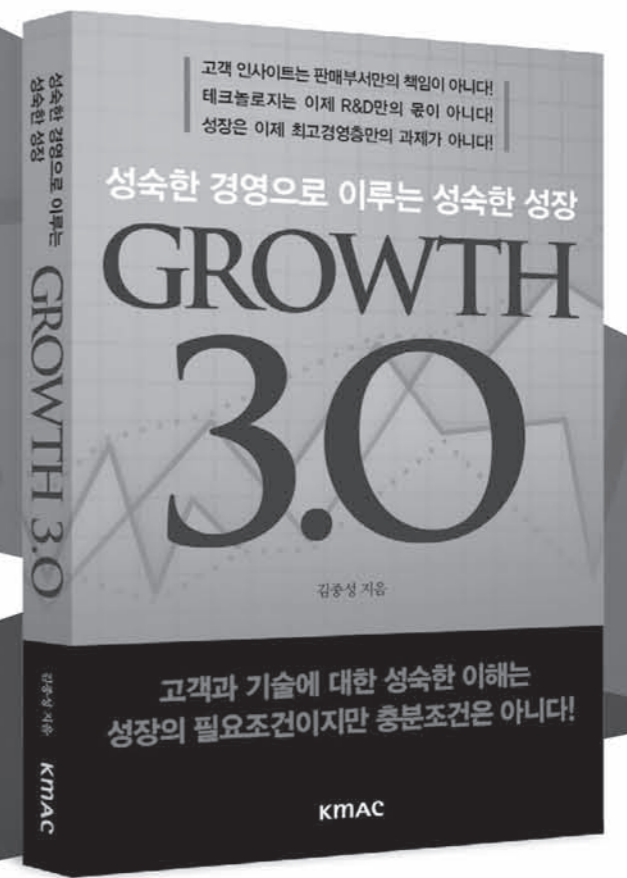
또한 세계 각국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멀티·메카 부문의 기술개발에도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중장기 전략의 바탕에는 기존 제조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체 매출의 10% 수준인 해외 완성차 메이커로의 수출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2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신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자리 모인 코넥스 상장법인 “내년엔 코스닥!”

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한 ‘합동IR’ 개최... 벤처기업 ‘성공신화’ 다짐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코넥스 상장법인 합동IR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코넥스 상장법인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증권사 연구원들과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재준 코스닥본부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개설 당시 상장 업체가 21개에서 현재 61개로 증가했고 코넥스를 통해 19개업체가 644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코스닥 상장법인에 M&A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했고 매매 방식을 단일가에서 접속 매매로 변경하는 등 시장 효율을 제고한 바 있다”며 “창조경제의 근간인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확고한 비전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코넥스 상장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4 하반기 코넥스 상장 법인 합동 IR(Investment relations)에서 김재준(앞줄 가운데)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상장 법인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EO들은 “내년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진출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유니온 커뮤니티의 신요식 대표는 “올해 예상 매출은 350억원, 순이익은 20억원 정도”라며 “내년은 매출 500억원, 순이익 4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하반기에 코스닥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데이터전문기업 데이터 스트림스의 이영

상 대표도 “2008년도에 이미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200억원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개발해온 부분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좋은 반응을 얻으며 내년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넥스 상장사 대표들이 코스닥 상장을 자신하면서 ‘코스닥 상장의 사관학교’,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라는 시장 출범 초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신한BNPP, 합성ETF 출시 23개 선진국 주식 분산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해외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신한BNPP SMART 합성-MSCI 선진국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북미를 포함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3개 선진국의 중-대형주 약 1600개 종목으로 구성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업종별로는 금융, IT(전기전자), 임의소비재, 건강,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스와프 거래 상대방은 미래에셋증권이다.

MSCI 월드 인덱스는 MSCI에서 정의한 선진국의 투자 가능한 모든 종목 중 △시가총액 △유동성 △외국인 투자 가능 비율 △최소 거래 기간 등을 반영해 지수 편입 대상 종목으로 선정한다. 분기, 반기별로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수 리밸런싱을 수행, 종목 변경 시에도 과도한 지수 변화는 제한된다.

합성ETF(상장지수펀드)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실물 ETF와 달리 장외파생상품인 스와프(Swap)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아 운용된다. 따라서 실물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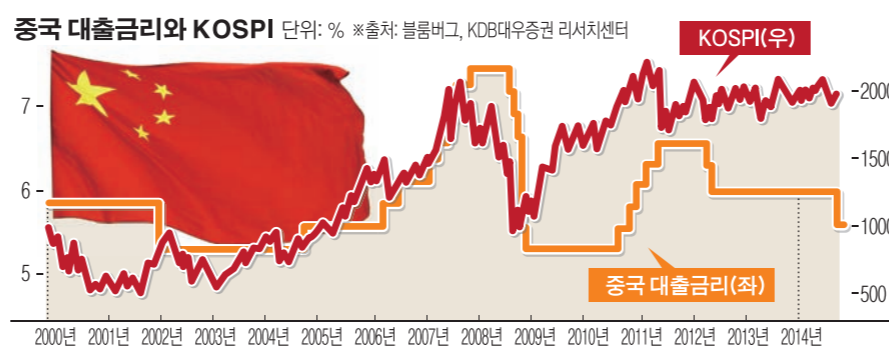
“中 금리인하... 증권·비철금속株 수혜 예상”

한화증권 “코스피 단기강세 연말까지 2030선 가능”

중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신중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역시 단기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금리인하는 환율 방어에 불과해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박성현 연구원은 25일 “(중국 금리인하 이후) KOSPI도 반등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국시로의 펀드플로 개선, 중국 관련주로의 심리 개선 및 이들에 대한 숏커버 움직임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12개월 포워드 PBR 1배 수준인 2030pt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리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율 문제와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 레벨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존재하며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미국의 경기 순환적인 금리 인상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2012년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국의 섀터널 퍼포먼스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와 화학이 가장 강했고, 시간이 지남수록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같은 양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의 경우 2012년에 비해 반등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소재의 경우 공급 과잉 문제가 있는 화학이나 철강보다는 금 등 비철금속 관련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기계, 조선 등 산업재의 경우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고, 항공운송의 경우 유가의 일시적 반등에 의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를 권고했다. 증권주는 연말 지수 반등 움직임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작용해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동북아 증시 투자유망”

한·중·일 제조업 비중 커 국제유가 하락 수혜

미셸 방 이스트프링 부사장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이스트프링자산운용은 내년도 동북아시아 증시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미셸 방(Michele Bang·사진) 이스트프링자산운용 수석부사장(Deputy CEO)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스트프링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주식 시장 인덱스의 수익률은 7.5% 내외”라며 “이 중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특히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고 원자재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달러 흐름도 강세 흐름을 보여 무역수지도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방 수석 부사장은 “아시아 국가의 기업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데다 금융시장도 여전히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다.

실제 아시아 금융시장의 펀드 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아시아에 진출하



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 수석 부사장은 “미국의 뮤추얼펀드 보급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8%, 유럽은 47%인데 비해 아시아 지역은 8%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개시된 중국의 후강통도 아시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훈풍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방 부사장은 “후강통은 중국과 교역이 많은 대만과 한국,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트프링자산운용은 영국 프루덴셜(Prudential) 금융 그룹의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사로, 약 1170억달러(120조원)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인 여성인 방 부사장은 도이치자산운용을 거쳐 지난 2013년 이스트프링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세일즈채널, 상품개발, 투자 마케팅 등을 총괄하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금감원, 지방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지방 소재 40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시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지방 소재 상장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새도보팅제도 폐지 등 최근 법규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도보팅 폐지에 따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 중

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그 활용 방법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신외 제출 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절차 △증자시 실권주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업무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평소 공시 담당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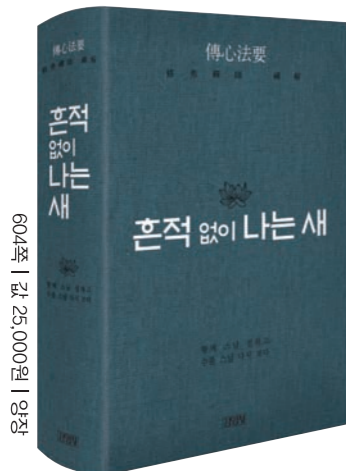
김희진 기자 heejin@

“혼란한 세상, 당신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불 스님 《전심법요 傳心法要》 선해禪解

흔적 없이 나는 새

황벽 스님 설하고 수불 스님 다시 보다



허공을 나는 새 흔적이 없듯이,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흰 눈의 자취가 없듯이 흔적 없이 마음을 내고 마음을 쓰라!

당대 代 지성인 배후가 묻고, 스승 황벽 선사 답한 진리의 문답. 임제종의 초석이 된 《전심법요》를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수불 스님의 선 수행 길라잡이. 1200년 전 진리를 향한 뜨거운 구도의 순간이 단박에 되살아난다!

수불 스님 이십대 초반에 지명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로 출가.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에서 250회 이상 ‘간화선 집중수행’을 개설하여 출가 수행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까지 2만 명 이상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하였다. 간화선이 정확하고 빠르며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산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김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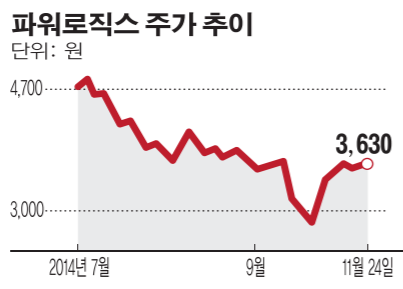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전기차·자전거 '양날개'로 재도약

2차전지 수요 증가...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보다 333% 늘며 '흑자전환'

파워로직스가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분석이다. 파워로직스는 삼성SDI, LG화학 등 글로벌 2차전지 업체에 보호회로를 공급하고 있다.



에서 "한국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포물러B에 출전한 마힌드라그룹은 지난 2010년 '데비전'기차의 지분 55.2%를 인수해 마힌드라레바를 설립했고 현재 자체 개발한 순수 전기차인 '이투오(e2o)'를 양산하고 있다.

전기차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충전서비스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전남 SK건설은 서울시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 충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마다 싸고 편리한 모바일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SK건설이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전기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전기

자전거 시장은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올해 84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에는 2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전거 업체 알톤스포츠의 주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7월 이후 200% 가까이 올랐다. 알톤스포츠는 전기자전거에서 삼성SDI와의 제휴로 무게가 가볍고 부피는 작으면서 효율은 좋은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이 회사는 삼성SDI, LG화학, 산오, 역신전자, BYD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파워로직스 관계자는 "2차전지 보호회로 산업은 제품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선발업체로서 시장 선점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워로직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전분기 대비해서는 33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8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 8억원, 전분기 17억원에서 적자에서 흑자전환도 돌아섰다.

송영록 기자 syr@

공시 돋보기

배당가뭄 뿔난 '슈퍼개미' 에리트베이직에 '선전포고'

"배당 확대와 주주권리 보호" 개인주주 최은, 경영참여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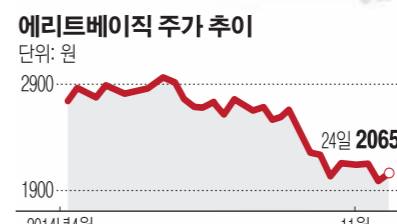
에리트베이직 경영권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개인주주가 에리트베이직 주식을 매집하며 조건부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호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자하면 경영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주주 최은 씨는 특수관계인 4인과 에리트베이직 주식 116만4314주(지분율 8.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지난 8월 26일 에리트베이직 주식 6000주를 매입하기 시작해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수를 75만8490주(5.45%)까지 늘렸고, 불과 3개월 만에 최씨는 지분율을 8%대로 끌어올렸다.

에리트베이직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집한 최씨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의 약사로 알려졌다. 특수관계인 4인은 최씨의 친인척으로 직업이 약사, 주부, 자영업자다. 최씨와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에는 삼일제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이 종목의 지분율을 6.99%까지 확대했다가 지난 4월 4.39%로 낮춘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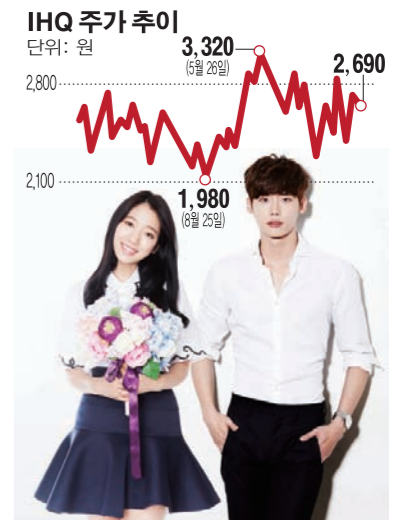
최씨는 최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수익을 위한 단순 투자만 하던 최씨가 에리트베이직에서는 주요주주 자리잡은 데 이어 조건부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씨는 향후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계속해서 주가 관리 안 되고 방만경영을 한다는 판단이 서면 주식을 지속해서 매집해 제어할 것"이라며 경영권 확보까지 내다보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에리트베이직의 최대주주는 우성I&C로 지분율은 18.39%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37.13%까지 올라간다.

이에 대해 에리트베이직 측은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경영권 분쟁까지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IHQ 드라마 '피노키오' 역대 최고가에 中 수출

코스피 상장기업 IHQ가 제작한 SBS 수목 드라마 '피노키오'가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보유한 유쿠 투도우(Youku Tudou) 그룹에 회당 28만불로 판매했다.

이는 중국에서 판매된 한국 드라마로는 역대 최고가다. 최근 비, 크리스탈 주연의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기록한 회당 20만불을 단숨에 뛰어넘은 계약 규모다.

IHQ는 "국내 뿐만 아니라 '피노키오'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피노키오'를 지난해 '별그대'를 잇는 올해 최고의 한류 드라마로 탄생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유쿠 투도우 그룹'은 중국의 유튜브 브로 불리며, 매달 50억 이상이 방문하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www.youku.com)'와 '투도우(www.tudou.com)'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드라마 '상속자들'을 중국 동영상 사이트로는 최초로 서비스하면서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지속적인 한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중국 이용자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IHQ가 제작한 '피노키오'는 지난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만든 박해린 작가, 조수원 PD, 배우 이종석 이 다시 기가투합한 작품으로 지난 12일부터 SBS 수목극으로 첫 방영을 시작했다.

IHQ 관계자는 "올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IHQ가 제작한 '피노키오'가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점을 찍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을 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트레이스 '지문인식' 정부사업 주관사 선정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개발

트레이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터치스크린패널(TPS)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하는 '감성터치패널' 개발 및 산업융합지원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레이 화면상에서 더 높은 해상도와 인식 속도로 전세계 스마트 기기의 보안 시장 석권을 위한 제품기획에서 마케팅까지 망라하는 산관학의 대형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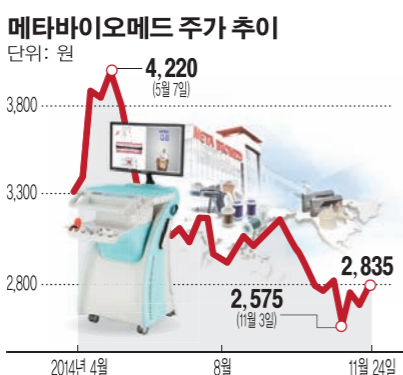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연세대 전자공학과,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이 참여해 원천기술의 개발, 시장 조성, 시장 진입을 목표로 매출 수요처 확보까지 체계화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트레이스의 관계자는 "애플, 삼성전자 갤럭시, 화웨이 등의 개인 보안인식 모듈이 이번 제품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발을 통해 기존의 지문인식 모듈의 기술종속성을 탈피하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더 높은 해상도와 인식속도를 가진 손가락터치의 지문인식 시대가 현실로 개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손가락만 화면에 터치하면 간단히 지문인식을 하는 이번 제품은 전세계 대부분의 세트 제조사들이 편의성과 단가절감을 이유로 급속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메타바이오테드, 中업체와 135만달러 수출 계약

메타바이오테드는 중국 의료기기 전문업체와 135만 달러 규모의 내년도 1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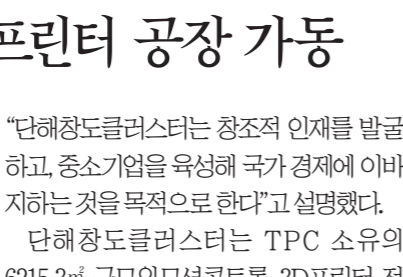
메타바이오테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의 물꼬를 텄다"며 "향후 2차, 3차 수주로 이어지는 장기적 거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써 중국 수출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타바이오테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의료기기전시회 MEDICA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특히 최근 CE(유럽공동체마크) 인증 획득에 성공한 내시경카테터 제품 'i-폴관'을 출품해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송영록 기자 syr@

TPC, 국내 최대 3D프린터 공장 가동

자동화 부품·장비 업체 TPC메카트로닉스(이하 TPC)가 인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내에 국내 최대규모의 3D프린터 공장을 가동한다.



TPC 관계자는 "3D프린터 사업분부는 월 1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았다"며 "전시실과 체험관을 설치해 3D프린팅 산업의 대중화와 보급 부문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하나대투증권, 조기상환 ELS 등 6종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조기상환 조건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ELS 등 다양한 파생결합상품 6종을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 ELS 501회'는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킨 상품으로 연 6.00%의 쿠폰수익률을 추구한다.

탐엔지니어링 3분기 영업이익 '탐' 찍었다

지난해보다 966% 증가... 2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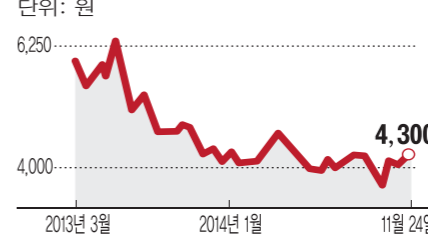
탐엔지니어링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의 2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7%,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96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2억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37억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373%나 성장했다.

이를 통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764억원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6억원과 77억원을 기록했다.

탐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올해 중국과 대만 패널업체의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장비 공급이 증가했고 파워로직스를 포함한 계열회사들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열사인 파워로직스는 보급형 스

탐엔지니어링 주가 추이



마트폰 카메라모듈과 보호회로 제품의 물량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전 분기 대비로는 큰 폭 상승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탐엔지니어링 측은 "4분기에도 중국 패널 제조업체들에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된다"며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맞춰 계열사의 실적 호조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영감을 불어넣다

100조 세계 시장을 창출할 탄소섬유-
 효성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여
 전북을 글로벌 탄소밸리로 발전시킵니다
 기술과 기술,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
 창조경제를 신명나게 돌아가게 합니다

효성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HYOSUNG